

#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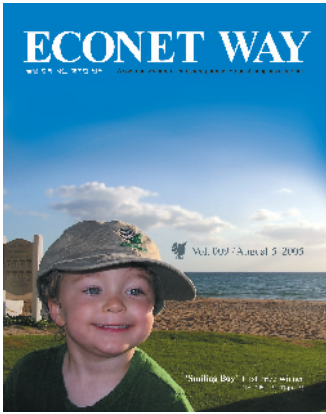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09 / August 5, 2005

'Smiling Boy' First Prize Winner  
사진컨테스트 최우수작





에코넷웨이(ECONET WAY) 8월호  
발행인 이병훈  
발행처 (주)남양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  
편집 오경아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인쇄 정광인쇄(주)

**ECONET WAY August issue**  
Publisher : Bill Lee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Editor :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여성들이여! 시금치를 먹어라! ...

## 시금치

시금치에는 암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 눈 질환을 예방하는 루테인, DNA의 산화를 막아주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하다.

그러나 오늘은 시금치의 루테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한다.

캘리포니아의 안과의사 플랫박사는 루테인이 눈에 항산화작용을 하는 대표선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루테인이 몸안에서 또 다른 항산화물질인 제약산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하나로 두 가지를 얻는 셈이라고 덧붙인다. 시금치를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만 루테인을 남성만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더 필요하다. 이밖에도 시금치의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안쪽 축축한 곳에서 DNA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 준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오늘부터 반찬이 궁할때 시금치 반찬이 어떨까?

## Ladies! Eat Spinach! Spinach!

Spinach is rich in beta-carotene, which prevents cancer; lutein, which protects against eye disease; and glutathione, a powerful antioxidant for DNAs.

However, today's focus will be on the lutein found in spinach.

Dr. Pratt, an ophthalmologist in California, says that lutein is a champion antioxidant for your eyes. Moreover, lutein creates zeaxanthin, another antioxidant, in our bodies. It's like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Eating spinach is good for everybody, but it's even more important for women, who absorb lutein less readily than men. Also, the glutathione found in spinach prevents the oxidation of DNA within cells. What more do we need to tell you!

If you're not sure what to make for dinner tonight, how about a spinach dish?



## ECONET WAY

공동 협력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 Contents

#### Company (ECONET 리포트)

02 > (주)유니젠 주력상품 헤븐리진생 (Heavenly Ginseng)

06 > 천연물 보고 인삼

10 > (주)남양알로에 브랜드전략에 대해

#### People

14 > 명사칼럼 내가본 남양알로에 (서울대 명예교수, 전 주러시아 대사 이인호)

18 > 부서별 소개 (주)남양 연구실

22 > 조선일보 사진부 이기원 기자 탐피코 알로콧 농장 방문기

26 > 칭찬 릴레이 네번째 주인공 (유니젠러시아 구원모 지사장)

30 > 칭찬 릴레이 미국현지법인 두번째 주인공 (오아시스 J.T. 윌트워스)

#### Culture

36 > ECONET 기업문화 알리기 (주)남양알로에 기업문화 소개

40 > 문화탐방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문화

44 > 풍물기행 세계를가다 1 Remember The Alamo!

48 > 풍물기행 세계를가다 2 아름다운 금강산

#### Info

52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62 > ECONETIAN 8월 사진 콘테스트

66 > 8월호 퀴즈 및 6월호 퀴즈 & 사진 컨테스트 당첨자 안내

#### Company (ECONET Report)

04 > Key Unigen Product “Heavenly Ginseng”

08 > Natural Product Update Ginseng

12 > About Namyang Aloe's Brand Strategy

#### People

16 > Namyang Aloe in My View Inho Lee, Honorary Prof. at SNU and former Korean Ambassador to Russia

20 > All About Our Team Namyang Company R&D Team

24 > Kiwon Lee, a Chosun Ilbo Reporter A Visit to Aloecorp's Tampico Plantation

28 > A Relay of Praises The Fourth Runner (Wonmo Koo, CEO of Unigen Russia)

33 > A Relay of Praises The Second Runner from the U.S. Subsidiaries (J.T. Whitworth, Oasis )

#### Culture

38 > ECONET Corporate Culture Introducing the Corporate Culture of Namyang Aloe

42 > Cultural Travelogue Celebrating the Fourth of July, American Independence Day

46 > Around the World 1 Remember the Alamo!

50 > Around the World 2 Beautiful Geumgang Mountain

#### Info

52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62 > ECONETIAN August Photo Contest

66 > August Quiz and the Winners of the June Quiz and Photo Contest





하늘의 인삼(天上之蔘)

## 헤븐리진생(Heavenly Ginseng)

인삼종주국의 명예회복을 위해

인삼(人蔘)은 한국의 대표적인 약용식물이며 오래 전부터 세계가 인정해온 한국의 천연물이다. 한국의 ‘고려 인삼(Korean Ginseng)’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낙스진생(Panax Ginseng)’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그 신비의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삼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지녀왔다. 하지만 현재 세계인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이 아니다. 독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인삼의 과학화를 통해 세계인삼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 등 전통 천연물 강국들이 풍부한 원물과 가격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경쟁자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한국이 인삼종주국이란 자부심은 실속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다. 유니젠은 이렇게 ‘자원주권(資源主權)’이 빼앗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한국이 가진 천연물의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화를 통해 새로운 인삼을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인삼종주국의 명예회복, 자원주권회복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인삼의 새로운 표준 ‘헤븐리진생’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 # 인삼 효능의 근원 - 진세노사이드

인삼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자양강장기능부터 항암기능까지 여러 신비한 효능이 밝혀졌다. 인삼이 이러한 효능을 갖는 근본 성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사포닌(Saponin)이라고 부르는 성분이다. 사포닌은 인삼 이외에 다른 식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은 그 특유의 효능으로 인해 다른 사포닌과 구별하여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s)라고 부른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약40여종 함유되어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효능이 각기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진세노사이드가 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각각 일정 수준이상으로 함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인삼이 개별 진세노사이드들을 각각 일정수준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진세노사이드들의 효능을 기대하기 위해선 각각의 함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아주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함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 # 세계 표준을 바꾼 인삼 신소재 - 헤븐리진생

유니젠생명과학연구소 연구진은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만이 인삼의 효능을 최적화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별 진세노사이드들이 항상 일정수준이상으로 함유된 인삼 신소재 헤븐리진생을 개발하게 되었다. 헤븐리진생의 개발은 새로운 인삼을 개발했다는 것 이외에도 인삼의 새로운 표준을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헤븐리진생은 진세노사이드 Rb1, Rb2, Rg1등을 비롯하여 10여개 개별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보증하는 인삼 신소재로 2002년에 한국에서 개발된 천연물 소재로선 최초로 국제천연물박람회 ‘Supplieside Show’에 출품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국내에 완제품으로 개발 출시되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선보였다. 전통적으로 인삼은 그 품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천삼(天蔘), 지삼(地蔘), 양삼(養蔘)등으로 부르는데 헤븐리진생이란 최고의 인삼에 부여하는 천삼(天蔘)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의 인삼, 천상의 인삼’이란 뜻이다.

### # 효능과 성분이 강화된 2005년 NEW 헤븐리진생 탄생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던 2002년에 처음 선보인 헤븐리진생 완제품은 ‘헤븐리진생 파워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헤븐리진생 제1세대 제품인 ‘헤븐리진생 파워프로그램’은 인삼 신소재 ‘헤븐리진생’과 녹용, 천궁, 운지, 감초등 전통 한방약재들이 함유되어 체내에너지를 생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헤븐리진생 파워프로그램’은 그 특별한 효능과 차별화된 포장방식으로 사용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일반 인삼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가격이 대중화에 어려움을 주었다. 유니젠의 연구개발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에 제2세대 제품인 ‘NEW 헤븐리진생’ 제품을 탄생시켰다.

신제품 NEW ‘헤븐리진생’은 진세노사이드 보증 함량과 종류가 더욱 강화된 ‘헤븐리진생 신소재’를 비롯하여 전통의 홍삼성분 및 최근에 개발되어 주목 받고 있는 산삼배양근 성분등 현존하는 모든 인삼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5종의 베리(Berry)류가 함유되어 체내 에너지생성 기능을 강화 시키는 한편 우수한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유지 및 노화예방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되었다.

신제품 NEW ‘헤븐리진생’은 기존 제품에 비해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5배 이상 증가 되었으며 용량도 기존 1회 20g에서 1회 30g으로 증량되어 좀더 풍부한 인삼의 유효성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 베리류가 함유되어 인삼 특유의 쓴 맛을 없애고 부드러운 복용감을 제공하여 어른은 물론 맛 때문에 인삼제품의 섭취를 기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편하게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포장도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파우(Pouch)형태로 편리성을 향상되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 경제적 가격으로 출시되었다. 기존 제품이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있었는데 유니젠의 연구개발진은 원가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인 가격에 더욱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NEW 헤븐리진생은 건강기능식품법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개발 제조된 인삼제품으로 일반 인삼제품들은 표현할 수 없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명예도 부여 받게 되었다.

인삼종주국의 명예와 자원주권(資源主權)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감에서 출발한 헤븐리진생 개발프로젝트는 이제 우수한 완제품들의 출시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의 헤븐리진생은 새로운 인삼의 표준으로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헤븐리진생을 통해 세계인들은 ‘하늘의 인삼, 천상의 인삼’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다시 한번 인삼종주국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인삼- 헤븐리진생’이 있다.

### # 헤븐리진생 홍삼성분함유제품

- 용량: 1포 30g × 60포
- 복용방법: 1일 2회/1회 1포
- 소비자가격: 360,000원
- 제품상담 : 080-460-5454





**Ginseng** is a representative medicinal herb of Korea and a natural product that has enjoyed global recognition for a long time. Only Korean ginseng is called panax ginseng, and its miraculous efficacy is known throughout the world. Naturally, Koreans have long taken pride in being the leading producer of ginseng. Unfortunately, however, it is not Korea that dominates the world's ginseng market today. Western nations including Germany and the U.S. are heading the world's ginseng market through their scientific research on the herb. Countri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leading producers of natural products, such as China, are becoming new competitors and capturing the market through their abundant resources and price competitiveness. Korea's pride as a leader in ginseng no longer bears any substance and persists in name only. Realizing that the only way to overcome this unfortunate reality where we fall short of "resource sovereignty" is to create a new variety of ginseng through scientific research that builds on Korea's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natural products, Unigen Korea launched an initiative to restore Korea's fame as a leader in ginseng as well as its resource sovereignty; namely the development of "Heavenly Ginseng," which is a world's new standard for ginseng.

*The source of ginseng's efficacy - Ginsenosides*

Numerous studies have revealed the various miraculous efficacies of ginseng, which range from general stamina enhancement to its cancer-fighting properties. But what is the fundamental ingredient that is the source of these effects? It is a component generally referred to as saponins. In fact, saponins are readily found in a variety of other plants as well, but the saponins contained in ginseng are distinctive from other saponins in their unique efficacies and are called ginsenosides. Ginseng contains roughly forty types of ginsenosides, and each one has a different function. For each ginsenoside to generate its own particular effect, a certain concentration is required. However, not every ginseng plant has the same ginsenoside conten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efficacy of every ginsenoside, it is necessary to ensure a particular concentration of every ginsenoside, which is not an easy task. Ginsenosides are minute components, which means very sophisticated technology is required to maintain the desired concentrations.

*A new ginseng product that changed world standards - Heavenly Ginseng*

With the belief that regulating ginsenoside content is the only way to optimize the efficacy of ginseng, researchers at the Unigen R&D Center developed a new form of ginseng called Heavenly Ginseng, which contains a precise concentration of every ginsenosid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high-tech bio-science technology Unigen researchers developed indigenously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Heavenly Ginseng is significant not only because of the creation of a new form of ginseng, but also by virtue of the fact that a new standard for ginseng has been developed. Heavenly Ginseng is a new ginseng substance that assures a certain content of about 10 individual ginsenosides, including ginsenosides Rb1, Rb2 and Rg1. It was the first natural product developed in Korea to be exhibited at the SupplySide Show in 2002 and garnered a positive response. It has also been developed into a finished product and exhibited at Osong International Bio-Expo. Ginseng is traditionally rated, based on its quality, as "ginseng of heaven," "ginseng of earth" or "ginseng of nutrition." Heavenly Ginseng is derived from a ginseng of heaven, which refers to the best or highest quality ginseng.

*New Heavenly Ginseng with improved efficacy and ingredients created in 2005*

A finished Heavenly Ginseng product, which was introduced in 2002 when the Korean soccer team

played a semi-final game at the 2002 World Cup games, was marketed as the Heavenly Ginseng Power Program and became popular among many. The first-generation Heavenly Ginseng product, the Heavenly Ginseng Power Program, contains the new ginseng substance Heavenly Ginseng as well as traditional medicinal herbs, such as young antlers, Cnidium officinale, Polyporaceae, and licorice root. They energize the body and promote health. The Heavenly Ginseng Power Program elicited an overwhelming response from customers thanks to its exceptional efficacy and unique packaging. However, it was difficult to popularize the product because of its relatively high price. Researchers at Unigen have made new efforts to address this problem, increase sales and turn it into a product representing Korea. As a result, the second-generation product "New Heavenly Ginseng" was introduced in 2005.

New Heavenly Ginseng contains the new Heavenly Ginseng ingredient, which has improved and expanded ginsenoside content, traditional red ginseng and cultivated mountain ginseng root, which was recently developed and has attracted much interest. It also contains five types of berries, which are natural antioxidants that have recently been experiencing explosive popularity. It has been newly launched as a product that enhances the body's production of energy and helps maintain health and prevent aging through its powerful antioxidation action.

New Heavenly Ginseng has five times the ginsenoside content of the earlier product. Its dosage has also increased from 20g to 30g to offer a greater abundance of ginseng's active ingredients. It also contains berries, which are natural antioxidants, to soften the bitter taste of ginseng and make it easy to take. Adults and teenagers and children alike who usually avoid ginseng products because of their taste can easily enjoy the benefits of this product. The product is packaged in pouches, which makes them more portable and easy to take. Its price has also become more economical. Unigen researchers made various efforts to lower the cost and were able to supply the new and improved product at a more affordable price. In addition, New Heavenly Ginseng is a ginseng product developed and manufactured according to strict criteria under the Health Supplement Food Act. It has been bestowed the prestigious label of "a specialty product of Korea," which cannot be used by other conventional ginseng products.

The Heavenly Ginseng development project, which began with the mission of restoring Korea's fame as a leading producer of ginseng and its resource sovereignty, has begun to yield tangible results with the launch of a high quality finished product. As a new standard for ginseng products, Heavenly Ginseng will be a source of hope for people who want to achieve healthy living.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be able to experience ginseng of heaven through Heavenly Ginseng, and Korea will once again be respected as a leader in ginseng. We now have a ginseng of heaven - Heavenly Ginseng.

*Heavenly Ginseng, a product containing red ginseng ingredients*

- Quantity : 60 x 30g / packet
- Instructions : Take 1 packet twice a day
- Retail price : 360,000 won
- For information, please call 080-460-5454





## 천연물보고

# 인삼

인삼(Panax ginseng)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지역과 미주동북지역 등에서 자생하고 있다. 식물학적 분류로는 Araliaceae(오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자생지는 깊은 산의 숲속이다. 줄기는 30~80cm, 잎은 줄기 끝에 3~5장의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다. 뿌리는 약용으로 이용하며, 그 형태가 사람형상이다.

인삼의 뿌리는 4~5천년전부터 민간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며 그 효능이 경험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에서는 “허약, 탈진, 피로, 권태, 집중력 감소 그리고 질병의 회복 중에 신체 건강과 심적 건강의 향상을 위한 예방과 회복시키는 작용제로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used as a prophylactic and restorative agent for enhancement of mental and physical capacities, in cases of weakness, exhaustion, tiredness, and loss of concentration, and during convalescence”(WHO, 1999)

### 주요성분

인삼사포닌(약 30여종의 Ginsenoside),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 플라보노이드(Flavonoid), 파나센(Panacen), 함질소 성분(Nitrogen Compounds), 비타민, 미량원소, 효소 등

### 효능·효과

인삼의 학명인 Panax는 만병통치라는 뜻인 “Panacea”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듯이 인삼은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혀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힘과 활력을 주는 강장제로서 광범위한 약효를 나타내며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 인삼의 약리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인삼의 약리효능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면역증강

인삼은 cytokine인 interleukin-2, 4, 10, 12, interferon-gamma등의 면역인자에 의해 야기되는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immunoglobulin의 생성을 증강 시킴으로서 면역증강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 ⇒ 운동능력

인삼은 운동에 의해 야기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 회로(TCA cycle)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 ⇒ 당뇨개선

인삼은 여러 동물실험모델 뿐만 아니라 임상실험 에서 당뇨억제활성이 보고되어 있다.

#### ⇒ 항알러지 효과 (Anti-allergic effect)

인삼성분 중 진세노사이드 Rh1은 강력하게 히스타민 방출(histamine release)을 억제하고, 면역인자(IgE)에 의해 유도되는 PCA(passive cutaneous anaphylaxis)를 억제함으로써 항알러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 ⇒ 항종양 효과 (Antineoplastic Effect)

인삼성분의 암세포 증식, 성장억제효과 및 암 전이를 억제하며, 항암제의 내성억제 작용을 한다. 인삼의 복용 빈도와 암 발생확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삼을 장기 복용할수록 암발병 확률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로부터 장기 비특이성 암 예방 효능이 보고되었다.

#### ⇒ 혈소판 응집억제작용 (Anti-platelet aggregation)

혈관내에서 혈소판이 응집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혈액 순환기계 질병을 악화시킨다. 인삼의 주요 ginsenoside들의 체내 대사과정 및 증상에 의한 가수분해과정에 의하여 생성되는 Ginsenoside Rg3 및 Rg5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 활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삼은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여러가지 혈액 순환기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 인지 기능 효과 (Cognitive Function Effect)

Ginsenoside-Rg2와 Rg3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유도하여 뇌세포를 활성화 시킨다. 또한 뇌 중 도파민(dopamine)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의 함량을 높이며, 뇌의 RNA와 단백질합성을 촉진하고, 혈액공급과 산소공급능력을 높여, 전체적인 자율신경활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촉진되어 항스트레스, 항피로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 ⇒ 숙취제거 효과 (Decrease in Alcohol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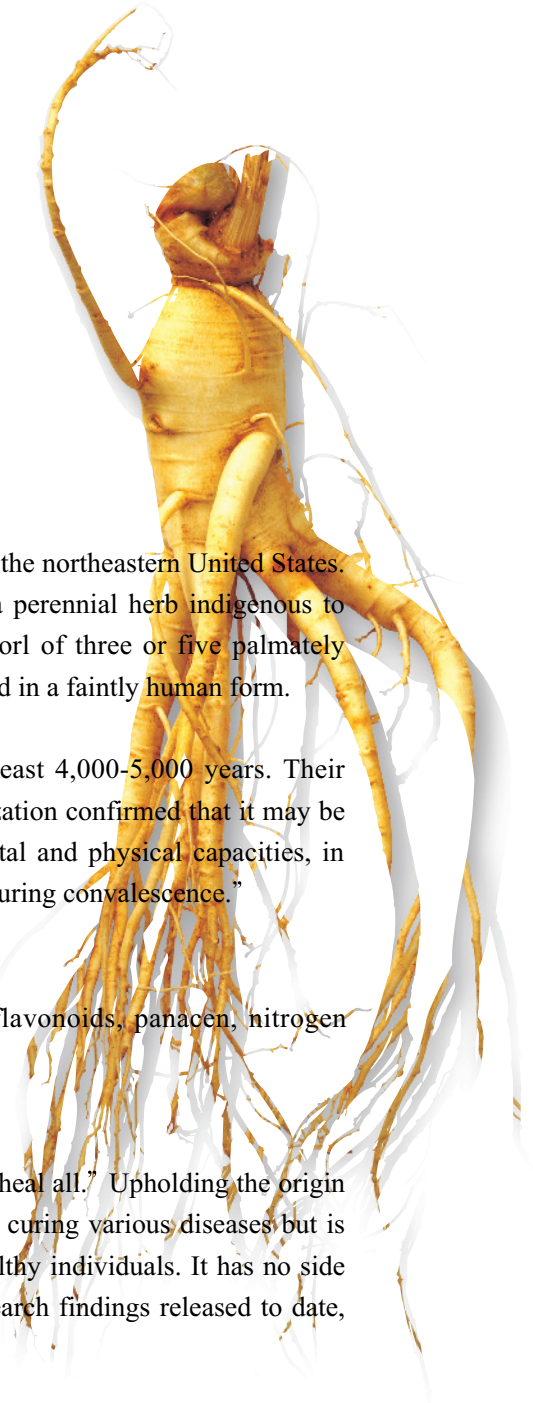
인삼은 알코올분해효소(Alcohol dehydrogenase, Aldehyde dehydrogen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혈중 알코올농도의 함량을 현저하게 낮춤으로써 알코올의 체내대사 및 배설함은 물론 알코올로 인한 간상해를 막아 준다고 알려져 있다.

#### ⇒ 성기능

혈관이 신축성을 잃게 되면 혈액을 신체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고혈압,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남성 발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게 된다. 인삼은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 음경발기의 관건이 NO(nitric oxide)에 대한 증강작용이 있어 음경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발기력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혈관확장 작용, 혈류증대작용 (Vasorelaxation activity)이 보고되었다.



# Ginseng



*Panax ginseng* is native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East Asia and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By botanical classification, it is a member of Araliaceae family. It is a perennial herb indigenous to mountainous forests. Its stems are about 30-80cm long and bear a whorl of three or five palmately compound leaves. Its roots are used for medicinal purposes and are shaped in a faintly human form.

The roots of *Panax ginseng* have been used as a folk remedy for at least 4,000-5,000 years. Their efficacy has been empirically proven. In 199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firmed that it may be “used as a prophylactic and restorative agent for enhancement of mental and physical capacities, in cases of weakness, exhaustion, tiredness, and loss of concentration, and during convalescence.”

**Main Ingredients**

Ginseng saponins (about 30 types of ginsenosides), polyacetylene, flavonoids, panacene, nitrogen compounds, vitamins, microelements and enzymes, among others.

**Efficacy and Benefits**

The name “*Panax*” is derived from *Panacea*, the Greek goddess able to “heal all.” Upholding the origin of its name, ginseng is not only enormously effective in preventing and curing various diseases but is also highly effective as an energizer in invigorating and revitalizing healthy individuals. It has no side effects even if taken continuously over an extended time. Based on research findings released to date, the pharmacological efficacy of ginseng is summarized below.

⇒ Bolstering Immune Function

Ginseng is reportedly effective in boosting immune function by controlling reactions caused by immune stimulators such as interleukin-2, 4, 10, 12 and interferon-gamma, which are cytokines, and enhancing the production of immunoglobulin.

⇒ Enhanced Stamina

Ginseng reportedly improves athletic stamina by protecting muscles from oxidative stress induced by exercise and affecting the TCA cycle of mitochondria.

⇒ Anti-Diabetic Effect

Anti-diabetic function of *Panax ginseng* has been reported from several animal testing models as well as clinical tests.

⇒ Anti-Allergic Effect

Among ginseng’s ingredients, ginsenoside Rh1 possesses an antiallergic effect, strongly inhibiting the release of histamines and suppressing PCA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induced by antibodies (IgE).

⇒ Antineoplastic Effect

Ginseng ingredients inhibit the proliferation and growth of cancer cells and the spread of cancers to other organs. They also reduce resistance to anti-cancer agents. A survey of correlations between frequency of ginseng intake and probability of cancerous cell development showed that when ginseng is taken continuously for an extended time, the probability of the development of malignancies becomes significantly low. The study reported that ginseng has the effect of preventing non-organ specific cancers.

⇒ Anti-Platelet Aggregation

Platelet aggregation in blood vessels impedes blood circulation, which aggravates various vascular diseases including arteriosclerosis,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diabetes and hypertension. Ginsenoside Rg3 and Rg5, which are produced in the process of metabolism and hydrolysis of ginsenosides in the body, are known to be effective in inhibiting platelet aggregation. Therefore, ginseng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curing various vascular diseases, including stroke and dementia.

⇒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Ginsenoside-Rg2 and Rg3 induces the release of acetylcholine, a neurotransmitter, and stimulates brain cells. In addition, they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dopamine and norepinephrine in the brain and accelerate the synthesis of RNA and protein. In general, they enhance autonomic nerve activity by increasing the supply of blood and oxygen. They promote parasympathetic nerve activity and help suppress stress and fatigue.

⇒ Decrease in Alcohol Levels

Ginseng enhances the activity of alcohol dehydrogenase and aldehyde dehydrogenase and significantly lowers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t is known to assist in the metabolism and discharge of alcohol and in the prevention of alcohol-induced liver damage.

⇒ Sexual Function

When blood vessels lose their elasticity, they cannot effectively supply blood to the body, which may result in hypertension and arteriosclerosis and lead to the impairment of erections in males. Ginseng

helps treat impotence by boosting levels of nitric oxide, which is critical for erectile function. Ginseng reportedly has vasodilation and vasorelaxation functions, which directly influence erection.



# 브랜드,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남양알로에 브랜드전략에 대해



## 지금 왜 브랜드인가?

남양알로에는 이제 내년 4월 5일이면, 창립 30주년이 된다, 지금까지의 30년, 한 세대를 마무리하면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중대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베풀고자 하는 기업철학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창출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미래 3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 하는 존재인가’ 라는 우리의 업(業)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이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행해야 할 주요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재정립과 밖으로 보여져야 할 우리의 모습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남양알로에 브랜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 하는 존재 인가’ 를 창업부터 이어온 회사의 철학에 비추어 재정의하자면, ‘과학’ 을 통해 ‘자연으로부터의 이로움’ 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 ‘이로움’ 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영원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을 통한 자연의 이로움” 이라는 고객 가치 창출이, 과거 30년 동안은, ‘알로에 소재를 중심으로한 한국형 방문판매 1위 기업’ 으로서 보여졌다면, 앞으로는 ‘알로에를 비롯한 천연식물 소재의 글로벌 직접판매 1위 기업’ 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다.

천연물로의 소재확장과 글로벌 직접판매회사로의 확대발전, 양측면의 가치확대를 어떻게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가 바로 브랜드전략의 요체인 것이다.

브랜드전략의 핵심은, 크게 브랜드의 수직적,수평적 체계를 재정립하는 브랜드포트폴리오 전략과 각각 보유한 브랜드들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두 가지이다.

##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 Fc전략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은, 각 브랜드에 대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관점에서 최적의 수평적 수직적 구조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전략상 주요 고려사항은, 천연물을 이용한 식품과 화장품 카테고리의 소재 확장성과 글로벌화라는 지역적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각각의 브랜드들의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고, 재정립하며, 또한 기존 남양알로에 브랜드자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각 브랜드의 커버리지와 보증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이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패밀리브랜드 중심이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브랜드(Corporate Brand)를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Fc전략>인 것이다. 여기서 패밀리 브랜드 중심전략이라 함은, 기존 기업브랜드인 남양알로에가 알로에소재의 건강식품에 계속 패밀리브랜드로 존재하고, 현재의 화장품 개별브랜드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패밀리브랜드 밑에서 위치와 역할이 재정립되는 것이다.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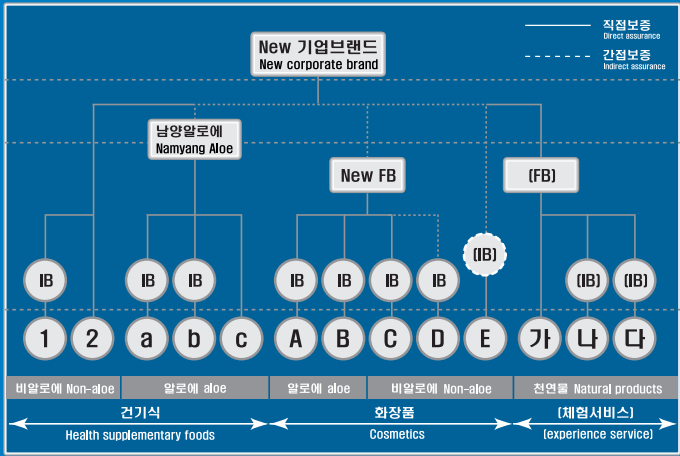


표 1  
Table 1 ▶

##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 – “자연, 과학, 그리고 이로움”

기업의 정체성(Identity)이 바로 브랜드의 정체성이다. 기업의 정체성은 곧 회사가 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기업문화로, 밖으로 는 기업의 이미지로 표출된다고 할 때, 정체성을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이 잘 정의되고 관리될 때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업이미지로 투영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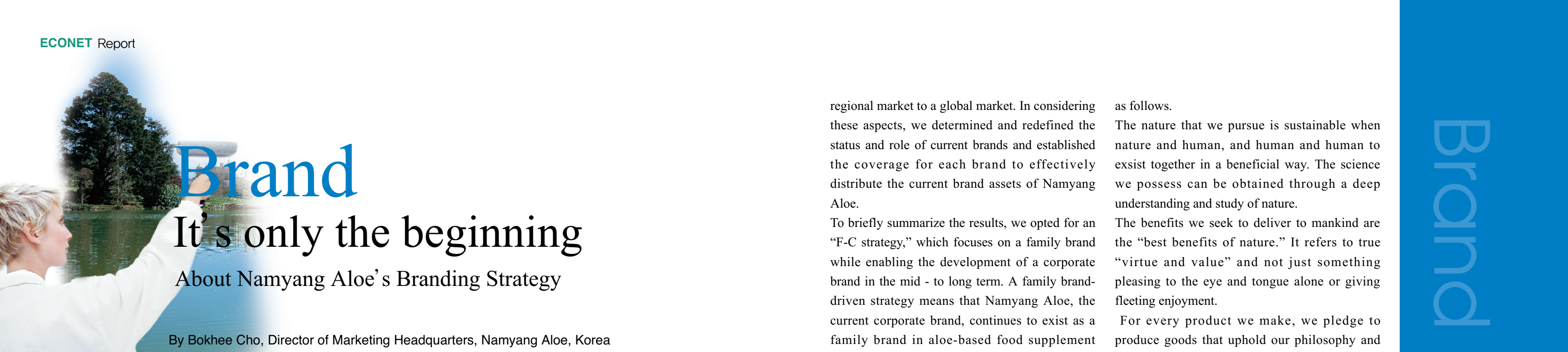
새로운 기업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곧 우리회사의 철학이자 미션에서 출발한다. 앞서 우리의 업(業)을 정의하기를, <‘과학’ 을 통해 ‘자연으로부터의 이로움’ 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 ‘이로움’ 은 인류에게 영원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한 바, 우리 기업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자연, 과학, 그리고 이로움”으로 정의하였다.

우리가 정의한 기업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자연, 과학, 그리고 이로움” 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지속되는 자연이며, 우리가 가진 과학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과학이다.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로움은 ‘이로운 자연의 혜택’ 을 말하는 것으로, 눈과 입에 즐거운 것,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진정성(眞情性)을 가지는 ‘좋은 것’ 을 말한다. 우리는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에도 철학과 아이덴티티에 맞는 제품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 에코넷 수직계열화를 통해 우리가 직접 재배한 원료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속에서 연구를 통해 그 기능성(efficacy)과 안전성(Safety)을 입증하고 자연과 사람의 안전과 조화를 위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할 것을 그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월든>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신학자 친구 블레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은 인간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시인의 눈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와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자연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금자리와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 라는 참 뜻을 품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 브랜드 철학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철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미래 30년의 비전수립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것이다.

글 – (주)남양알로에 마케팅본부장 조복희





# Brand

## It's only the beginning

### About Namyang Aloe's Branding Strategy

By Bokhee Cho, Director of Marketing Headquarters, Namyang Aloe, Korea

#### Why Brand Now?

On April 5<sup>th</sup> next year, Namyang Aloe will celebrate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its founding. We stand at a critical time for wrapping up one generation - the three preceding decades - and preparing for the next thirty years. Therefore, we must clarify and redefine our corporate philosophy,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and renew our commitment to our basic values and our vision for the future.

To prepare for the next three decades, we must redefine the essence of our business and answer the simple question: "Why do we exist?" By this, we are developing Namyang Aloe's branding strategy in two ways: reshaping major brand portfolios to sustain and strengthen our identity and redefining our brand identity and, the image of our company projects.

When we redefine "Why do we exist?" on the basis of our company philosophy that has endured from the company's founding, it becomes "deriving benefits from nature through science for mankind" Here, "benefits" means 'long-lasting, healthy, and beautiful living offered to mankind'.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our value

statement for customers "benefits from nature through science," may have resulted in the perception as "being a number one Korean-style door-to-door sales company focusing on aloe materials." In the future, it should evolve to "a number one global direct-selling company focusing on natural plant materials, including aloe."

How to communicate the two-dimension expansion of value - a material extension to natural products and the transition from a regional direct-selling company to a global direct-selling company - is the essence of a branding strategy.

The core elements of a brand strategy largely consists of redefining a brand portfolio strategy, which means reestablishing the vertical and horizontal brand system, and clearly defining the identity of our brands.

#### Brand portfolio strategy - F-C Strategy

A brand portfolio strategy seeks to rebuild a horizontal and vertical structure that is optimal i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for each brand.

The key strategic considerations include the material extension to natural products in food and cosmetic categories, and the transition from a

regional market to a global market. In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determined and redefined the status and role of current brands and established the coverage for each brand to effectively distribute the current brand assets of Namyang Aloe.

To briefly summarize the results, we opted for an "F-C strategy," which focuses on a family brand while enabling the development of a corporate brand in the mid - to long term. A family brand-driven strategy means that Namyang Aloe, the current corporate brand, continues to exist as a family brand in aloe-based food supplement products and the current individual cosmetic brand's positions and roles will be redefined under the newly integrated family brand.

(Table 1, attached → 11page)

#### Corporate Brand Identity - "Nature, Science and Benefits"

The corporate identity is a brand identity.

The corporate identity is the basis of every business activity undertaken by a company. Internally, it is respected as the corporate culture, while externally it is expressed as the corporate image. Therefore, defining identity is tremendously important.

When the brand identity is well defined and well managed, it conveys a positive corporate image to consumers.

The identity of our new corporate brand is derived from the philosophy and mission of our company.

Earlier, we had defined our business as "deriving benefits from nature through science and delivering them to mankind, with 'benefits' meaning 'long-lasting healthy and beautiful living offered to mankind'." Accordingly, the key identity of our corporate brand has been defined as "nature, science and benefits."

The concept of "nature, science and benefits," the identity of the corporate brand we had defined, is

as follows.

The nature that we pursue is sustainable when nature and human, and human and human to exist together in a beneficial way. The science we possess can be obtained through a deep understanding and study of nature.

The benefits we seek to deliver to mankind are the "best benefits of nature." It refers to true "virtue and value" and not just something pleasing to the eye and tongue alone or giving fleeting enjoyment.

For every product we make, we pledge to produce goods that uphold our philosophy and identit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based on raw materials we personally cultivated through the vertical integration of ECONET) to sales, we adhere to the principle of proving products' efficacy and safety through research and developing and using sustainable materials for the safety and harmony of nature and mankind.

Henry David Thoreau, the famous author of Walden, wrote the following in a letter to his friend Blake, a theologian: "Nature is ready to fulfill what it has promised to mankind. Nature is beautiful not only to the eyes of a poet. Just as a rainbow and a sunset are beautiful, how nature feeds, clothes, and offers shelter and warmth to us is also beautiful and inspiring."

Envisioning "harmony between nature and mankind," our brand philosophy seeks to find healthy and beautiful things in nature and deliver their virtues to customers, which is a beautiful deed. We, who strive to uphold this philosophy, are also truly beautiful beings.

In order to enhance this beauty, we need to focus on what we must prepare now, and this should be realized as our vision for the next 30 years. This is why we are standing on another threshold and why we brand now.

"deriving benefits from nature through science and delivering them to mankind, with 'benefits' meaning 'long-lasting healthy and beautiful living offered to mankind'."

Brand





#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전 주러시아 대사

러시아가 낳은 세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이미 19세기에 “흙을 밟고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했다. 어릴 적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몹시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나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러간 이제는 흙을 밟고 사는 일이 권리가 아니라 특전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 쌓인 작은 공간에 갇혀 지내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아예 가상공간에서 보내도록 몰리고 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흙”을 문자 그대로 “흙”으로만 좁게 받아드릴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보다 포괄적 의미의 “흙”, 곧 대지 또는 자연과의 친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얼마나 중요 한가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내가** 남양알로에를 알게 된 것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존경하고 따랐던 정희경 선생님, 곧 이병훈 사장님의 어머니 덕분이었다. 그러나 친지나 그 자녀들이 운영하며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많아도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남양알로에라는 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기업을 뒷 받침하고 있는 경영이념 이랄까 철학 때문이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돈 많이 벌겠다는 야망을 갖지 않는 기업인이 있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갈구와 욕망이 동력이 되어 우리는 찌든 가난의 때를 벗고 오늘 날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발전이라고 불려온 것의 상당 부분이 지속 불가능한, 인간과 자연에 대해 되돌아보기 어려운 심한 훼손을 수반한 변화였음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살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발전이 인간을 한낱 생산과 소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연을 파괴 함으로서 인류 전체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조짐이 사망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는 예는 불행히도 매우 드물다.

나는 경제가 아직도 어려웠던 시절 한국에서 창업하여 이제 다국적 첨단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남양알로가 바로 그 귀한 대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에 뿌리를 둔 경영철학과 그에 딱 맞는 기업 내용, 인간과 자연, 자연과 기술, 한국과 세계 사이를 생산적으로 다리 놓은 안목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성실한 인간성과 우수한 두뇌 - 이것이 바로 남양알로에가 아시아를 강타했던 엄청난 금융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며 이제는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를 굳혀갈 수 있게 된 비밀이요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약속이 아닌가 한다.

나는 아직 남양알로에 현장을 여러 곳 방문해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농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감회는 일제와 냉정시대를 살아 온 내게는 생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조상의 한이 서린 그 러시아 국경지대의 땅을 귀중한 약초생산지로 다시 살려 내며 실의에 빠져있던 현지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그곳에서 나오는 귀한 자연산 소재는 남양알로에 특유의 기술로 특약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변화시켜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된다니 이 보다 더한 윈-윈 게임이 있겠는가. 국경을 초월하며 가는 곳 마다 모범기업으로 인정받는 남양알로에의 성공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일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믿는다. 하지만 또한 이 모든 일은 남양알로에 이병훈 사장 이하 한국인 외국인 사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알며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 Inho Lee

Professor Emerit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former Korean Ambassador to Russia

It was more than a century ago when Leo Tolstoy, the Russian writer of world renown, wrote that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human happiness was treading the soil of the good earth. I remember being greatly puzzled by this remark as a young girl. Wasn't everybody doing it as a matter of course? Now, half a century later, I see better. For the constantly increasing mass of urban dwellers, treading on soil is becoming a privilege, no longer a right. More and more people, in particular children, are driven to live in a small space surrounded by concrete walls, often immersed in a virtual space of their own. Tolstoy was as great a visionary and prophet as a novelist.

We perhaps need not take Tolstoy's word "soil" in its literal sense. What he intended to point out was how vital it was for human beings not to lose touch and live in harmony with the earth or nature if they were not to be dehumanized. I first became aware of Namyang Aloe thanks to Helen Chung, the mother of Bill Lee and a well-known woman leader whom I had greatly admired since my high school days. There are many successful business enterprises connected to the families of my friends but I, a humanist, rarely take special interest. Namyang Aloe began to attract my attention because of its unique business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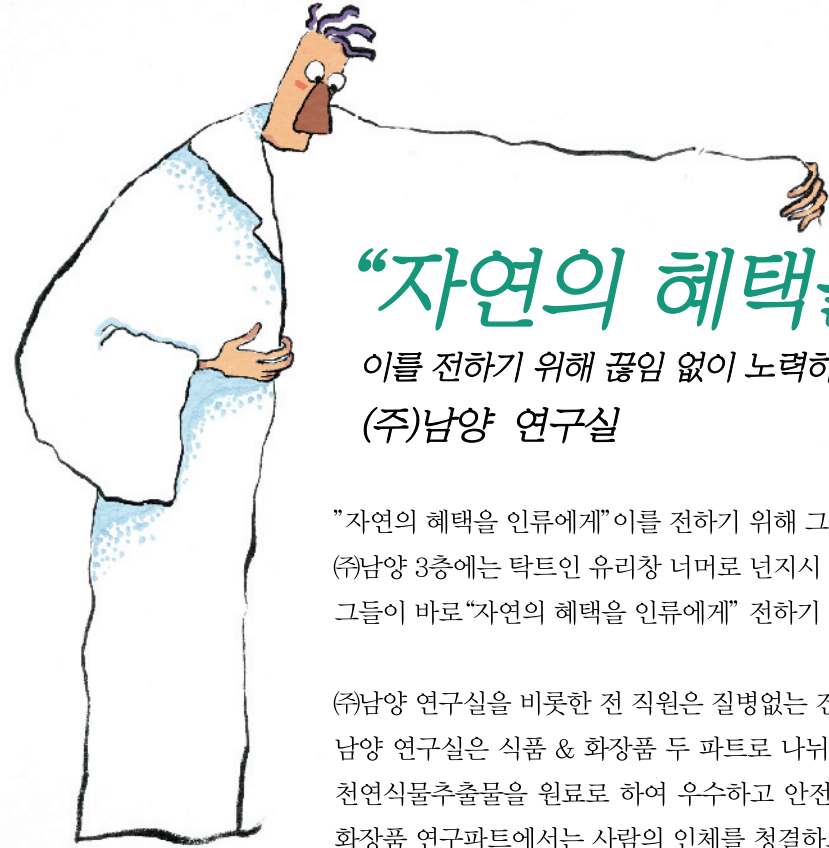


Everyone in the world desires to live well and every entrepreneur has the ambition to make a lot of money. In fact, such desires and ambitions have driven us to overcome poverty and build a nation recognized by the world. Unfortunately, however, we cannot help but admit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what we label progress has been accompanied by irrecoverable destruction that makes nature and human life unsustainable. There are signs everywhere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we pursue in the interest of a better life transforms people into mere tool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destroys nature.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entire human community is endangered, as many of us by now recognize. Unfortunately, however, viable alternatives courses of action are hard to come by. I believe that Namyang Aloe, which was founded in Korea when its economy was still weak and unstable but has managed to grow to become a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an outstanding example, which suggests that a worthy alternative is possible. A corporate philosophy that is based on profound love and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nature, and a business plan and operation style which embodies it, the vision and competence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man and nature, nature and technology, and Korea and the world, and above all, the personal integrity and brilliance of senior management - these, in my mind, are the secrets behind the steady growth of Namyang Aloe despite the many crises which rocked the company and the countries in which it operates. These qualities are also Namyang Aloe's key to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global leader and a promise for its unlimited growth in the future. I have yet to visit the many operation sites of the Namyang Aloe scattered around the world.

However, I w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of visiting the Kraskino plantation last fall. A mass of deserted land on the Russian border, where the sad memories of Korean settlers who had been forcibly removed to Central Asia by Stalin still linger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prosperous farm of medicinal herbs bringing hope to the local Russian population as well as a great business prospect for the corporation. As the precious natural materials produced at the plantation are turned into health-enhancing products through Namyang Aloe's unique technology and distributed worldwide, the benefits will reach far beyond Korea and Russia. I cannot think of a better example of a win-win situation. The success of Namyang Aloe, which is recognized as the foremost runner in its field across borders, is, in my mind, not only the pride of Korea. It is also a hope and promise for a brighter future for all of human kind. For tha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nd thank President Bill Lee and all his co-workers in Korea and abroad without whose dedication and corporate solidarity the miracle of Namyang Aloe would not have taken place.







#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이를 전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전도사들

(주)남양 연구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이를 전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주)남양 3층에는 탁트인 유리창 너머로 넉넉히 보이는 하얀 가운들을 입고 분주히 일하는 전도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남양 연구실의 13인이다

(주)남양 연구실을 비롯한 전 직원은 질병없는 건강한 삶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고자 연구노력하고 있다.

남양 연구실은 식품 & 화장품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식품연구파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와 각종 천연식물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생산관리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장품 연구파트에서는 사람의 인체를 청결하고 미화하여 활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 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는 미용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남양 연구실은 (주)남양이 천연물 시장에서 영원한 세계 1위 기업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인재들이 모인 곳이다.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제품의 변화로 더욱 더 바빠진 식품연구실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전반에 대한 규범은 식품위생법으로서 과자류, 당류등 20여개의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기준 규격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자는 반드시 이 기준 규격에 의해 식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한다.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란 유형의 제품도 식품위생법에 준하여 관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식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최소한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주)남양은 건강기능식품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반드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획득하여 국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회를 마련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주)남양은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이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전 ISO 및 한국 건강기능식품에서 추진하는 HFCC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에 준하여 안전하고,안정하며 유효성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왔으며 2003년 본격적으로 GMP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2005년 6월 7일에 취득하게 되었다. 이날 이병훈 대표이사는 약 2년여동안 GMP인증 즉 GMP지정업소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하신 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그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은

GMP를 통하여 만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신 고객들의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을 전하였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더욱더 발전하는 남양 연구실이 될것을 믿으며.. 아자아자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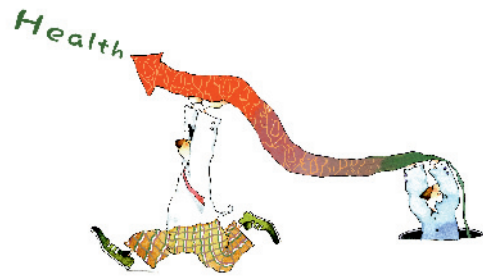
## 남양 전도사들의 말 말 말~!!

- 1. 안계환 실장님**  
건강기능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모두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에 선두주자가 됩시다..
- 2. 김진영 대리 (곧 예비 아빠 푸우~)**  
최고의 OEM/ODM 업체로서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최고인이 되자(한번 미치도록 뛰자 ~ ^^)
- 3. 유홍석 주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생활해야 건강에 좋지요 ~~  
긍정적인 생각에서 좋은 결과도 나올수 있는거구요 ~
- 4. 박용운 주임**  
항상 노력해야죠... 노력만이 살길 아닙니까?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 ^^
- 5. 채진희 주임**  
내가 안하면 우리는 안되구 우리가 안하면 나도 안된다는 생각으로 바뀌 ~! 바뀌 ~!
- 6. 정찬대 사원**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안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Fighting ~!!
- 7. 표한중 대리**  
Global 한 입맛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ECONET 중심에서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도 Global 한 맛과 제품을 위해 제재개발을 하고있습니다. 연구실!!! 그대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 8. 이재현 대리**  
연구실 식품파트에서 Q,C 및 GMP 관련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GMP 기준에 준하여 안전하고,안정한 또한 유효성 있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관리에 노력합니다.
- 9. 이충현 주임**  
변화를 두려워마라 ~~~!!!
- 10. 오정숙 주임**  
남양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모든 미생물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모두 웃으며 삼시다 ~~~
- 11. 이선숙 주임**  
연구실에서 식품,화장품 분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12. 서동미 님**  
연구실에서 제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 13. 유승환 님**  
연구실에서 정제,과립 OASIS 제품 QC 담당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글 - 남양 연구실 이재현 대리







##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Namyang R&D Team - making tireless efforts to offer the best*

*Their efforts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go on.*

Written by Jaehyun Lee, Assistant Manager, Namyang R&D Team

**By** a vast window on the third floor of Namyang, there are messengers dressed in white lab coats busy at work. They are the thirteen members of Namyang’s R&D team who make ceaseless efforts everyday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e entire staff of Namyang, including its R&D team, is making efforts to become messengers delivering a healthy life free of illness. The Namyang R&D team consists of two divisions: food and cosmetics. The food R&D division focuses on developing, producing and managing major raw materials of functional foods and high-quality, safe health supplements derived from various natural plant extracts. The cosmetic R&D division, meanwhile,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producing cosmetic products that enhance people’s vitality by keeping them fresh and beautiful and that maintain and promote healthy skin by brightening people’s appearances. As described, the Namyang R&D team consists of talented members who play important roles and are indispensable in realizing Namyang’s aspirations to become an enduring leader in the world’s natural product market.

The focus of this month is the food R&D section, which has become busier than ever improving products to align them with the Health Supplementary Food Act of 2004. The principal regulation governing all foodstuffs is the Food Sanitation Act. It classifies foodstuffs into about twenty groups, such as cookies and sweets, and sets standards and criteria. Businesses must produce and sell food products according to these requirements. Products categorized as functional foods must also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Food Sanitation Act. However, over time the public’s interest in health has escalated and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such products. As a result, food products that claim to be functional food products have been sold carelessly and have caused great damage to consumers.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ublic and protect consumers by assuring the safety of food products by improving their quality and promoting sound distribution and sale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law on functional foods and established basic requir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hese products. Accordingly, as a leading producer of functional foods, Namyang has laid the foundation to acquire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ertification and provide safe, quality food products to the public.

As mentioned earlier, as an industry leader, Namyang has been manufacturing and supplying safe, reliable and effectiv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ISO and HFCCP, administered by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long before laws on health supplements and functional foods were introduced, and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public health. Efforts to obtain GMP certification, which went into high gear in 2003, finally bore fruit on June 7, 2005. We would like to thank the entire staff of Namyang

for their efforts toward obtaining GMP certific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We believe that all our arduous exertion will be fully offset by the satisfaction and benefits enjoyed by all our customers who consume quality health supplements and health food products produced in compliance with GMP. We also want to convey that this is only the beginning, and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We are confident that we will continue to evolve in the ever-changing environment. Go, go! Let’s go!

### *Comments from Namyang messengers!*

#### 1. Team Leader Geywhan Ahn

Health foods and functional cosmetics are all within our reach.

Let’s be a leader in new value-creation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 2. Assistant Manager Jinyoung Kim (soon-to-be dad)

Let’s become the best by being the best OEM/ODM company providing the best quality. (Let’s get passionate about our work!)

#### 3. Supervisor Hongseok Yoo

Always smile - it’s good for your health!

Positive thinking produces positive results.

#### 4. Supervisor Yongwoon Park

Always strive hard and make efforts. Making efforts is the only way to survive.

Until the day we become the best...

#### 5. Supervisor Jinhee Chae

Change your attitude to believe that “if I don’t do it, it won’t work for all of us; and if we don’t do it, it won’t work for me”!

#### 6. Chandae Jeong

Negative thinking always brings bad consequences... Think positively, always... Go for it!

#### 7. Assistant Manager Hanjong Pyo

Do you have a global palate? Then you are certainly at the center of ECONET.

We develop materials for global tastes and products. Dearest colleagues, I’m happy thanks to you.

#### 8. Assistant Manager Jaehyun Lee

I’m in charge of quality control and GMP in the food section of the R&D team.

Let’s work hard to comply with GMP and manufacture and manage safe, reliable, and effective health supplement and functional food products.

#### 9. Supervisor Chungheon Lee

Don’t be afraid of change!!!

#### 10. Supervisor Jeongsook Oh

I oversee microorganism testing for all food products produced at Namyang.

Smiles bring luck. Let’s all smile.

#### 11. Supervisor Seonsuk Lee

I’m in charge of the analysis of foods and cosmetics.

I value “now.”

#### 12. Dongmi Seo

I’m responsible for material development within the team.

Let’s stay healthy. Our bodily strength is our national strength.

#### 13. Seungwhan Yoo

I’m a quality control technician for tablet and granular products for Oasis.

“The world is big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do!”





# 탐피코 알로콱 농장 방문기

글 - 조선일보 사진부 이기원 기자 (kiwiyi@chosun.com)



이기원 기자 & 케니 벨라헤  
Kiwon Lee & Kenny Verihe

## 첫 만남 탐피코

깔끔하게 정돈된 알로에 밭고랑이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진 이곳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 마치 고상한 한 귀부인이 정성들여 가꾸고 있는 화원 같아 보이는 알로에의 바다가 나즈막한 평원을 이루고 있었다. 머나먼 한국에서 거의 하루종일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기자를 맞이한 알로콱 탐피코 농장의 첫 인상이다.

## 알로콱(Aloecorp) 탐피코 농장

남양알로에 해외법인 알로콱(Aloecorp) 탐피코 농장은 레이크 팜(Lake farm) 120만평,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운틴 팜(Mountain farm) 20만평의 드넓은 농장은 북미에서 뿐만아니라 단일 농장 규모로는 세계최대라고 한다.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미국 텍사스 지역등에 위치한 미국 경쟁사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영농에서부터 고부가가치의 알로에 미세분말을 추출



하는 생산과정까지를 모두 갖춘 공장은 큰 호수가 있는 레이크 팜 내에 위치하고, 새로이 확장한 마운틴 팜은 넓은 수로를 끼고 있는 이 지역 인디언들의 마음의 고향인 거대한 바위산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절경 그 자체였다.두 농장의 특성은 이곳 탐피코 지역의 기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23~25도가 최적 성장 온도인 알로에는 ‘농사는 기후가 절반’이란 말처럼 겨울철의 가뭄 그리고 여름철의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몰고 오는 폭우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120명의 농부와 농장내에 위치한 알로에 겔(Gel) 추출 및 분말 생산 공장직원 100여명 그리고 사무직 10여명 모두 230여명, 대부분이 멕시코인 직원이다.이들 중 유일한 한국인인 김수겸(Joseph kim) 알로콱 관리부장은 “원료 생산에서 제품연구 판매 까지의 수직계열화(Vertically Integrated 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인 ‘ECONET’ 개념을 도입해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제품을 질을 높이고 있다”며 농장과 생산공장 연구소를 수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이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물산업 특유의 강점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2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한 알로에는 추출약물의 생명은 유기농.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쓸 경우 이는 곧 추출물의 순도에 치명적이라고 한다.농축 분말 알로에 추출물 소비자인 제약회사나 고급화장품 제조사는 천연물 그대로의 제품 성분에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천연식물에서 미세성분을 추출하라

“기회는 우연히 오고, 실패는 새로운 문을 열어 줍니다”. 알로에 겔(Gel)에 들어있는 약효성분을 추출해내는 연구 도중에 엄청난 수의 약효성분을 덩으로 찾

아냈고 지금도 수천종의 다른 식물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해내기 위해 연구중에 있습니다.미국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 기후환경에 맞는 안정적인 원료공급시스템을 구축한 남양알로에 이병훈 사장의 선견지명도 대단하다. 하나의 회사뿐만 아니라 한 국가 역시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하는 리더가 온 직원 온 국민을 먹여살린다는 말이 실감났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30년전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한 선인장 알로에 농업회사가 2005년 현재 알로에 성분 세계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한 천연식물산업의 선두주자로 식물신소재 분야의 성장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김수겸 부장은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끊임없이 남양알로에 회사를 설명했다. 세계 각지에서 채집해 연구 중인 3만여종의 천연식물 가운데4000여종의 식물의 약효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했고 지금도 계속 그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남양알로에가 업계에서 50년 이상 앞서가던 미국등 외국회사들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 유효성분을 천연상태로 보관하는 공법을 개발해낸 결과였다고... 이 과정에서 모든식물의 성분을 분석해내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회사의 유니젠(UNIGEN) 생명공학연구소는 현재 충남 병천, 미국 시애틀, 텍사스 세곳에서 운영중이며,중국 하이난(海南),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연구소는 올해안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멕시코 탐피코 농장 외에 미국 텍사스의 할링겐 농장(80만평),러시아 연해주 농장(650만평) 그리고 중국 현지법인 해남도농장(300만평)은 완성단계에 와있어 1천만평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 목숨건 낚은 세스나기 탑승

드넓은 ‘알로에 바다’를 걷기도 하고 차량으로 둘러도 보았지만 도대체 이 거대한 규모를 카메라에 담을 방법이 없었다.내일 다시 또 올 수 없는, 머나먼 땅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부터 이곳에 도착할 때 까지 고민하던 부분이다. 어디 경비행기 없을까요? 좀 찾아봐주세요?

이곳 탐피코 농장에서 머문 20시간중 가장 긴장된 순간이 경비행기를 타고 멋진 알로에 바다를 날아본 시간이었다. 농장 인근에 있는 농약살포용 경비행기용의 작은 비행장에 조종사를 키워내는 훈련용의 낚은 2인승 세스나기가 있었다. 체격이 거구인 조종사 케니 벨라헤(27)씨는 연신 미소를 띄며 이국인인 기자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추락해도 손해배상청구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며 볼펜을 건넨다. 싫으면 지금 포기해도 된다고 웃는다. 잠시 침묵이 흐르뒤 타겠다고 했다. 맘속으로 아 이제부터 절반은 남양알로에 맨이다라며...

비행기는 가볍게 활주로를 달려 멋진 탐피코 평원을 내게 선사해 주었다. 비행기가 레이크팜 상공에 다다르자 농부직원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직원들도 건물앞에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개척의 정신을 이국 땅에서 펼치는 남양알로에의 꿈을 이 멕시코인들도 함께하는구나. 이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랬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생각한 것이 바로 “인류에게 행복을”이라는 말이였다. 성실하기 그지없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김수겸 부장이 맨 처음 나에게 한 말이었지만 그 단어가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왔다. 하나의 기업도 수많은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고. 따가운 햇살에 고이 자라는 알로에 선인장이 순박한 한국의 인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보람이였다.농장 사람들을 관리하는 김수겸 부장의 성실함은 남양알로에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락해도 손해배상청구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며 볼펜을 건넨다. 싫으면 지금 포기해도 된다고 웃는다.





## A Visit to Aloecorp's Tampico Plantation

Written by Reporter Kiwon Lee, Photo Desk, Chosun Ilbo (kiwily@chosun.com)

### First encounter with Tampico

I wondered who would tend to the aloe plants in this place where endless rows of furrows are all lined up neatly. A sea of aloe plants resembling a flower garden carefully grown by a lady of refined taste formed low-lying plains. This was the first impression of the Tampico plantation of a reporter who flew nearly a whole day all the way from Korea.

### Aloecorp's Tampico plantation

The Tampico plantation of Aloecorp, a foreign subsidiary of Namyang Aloe, consists of the 1.2 million pyeong (about 970 acres) Lake Farm and the 200,000 pyeong (about 160 acres) Mountain Farm, which are about a 30 minute drive apart. Together they form the single largest plantation not only in North America, but also in the world. American competitors located in Texas, about 500 kilometers north of here, keep a close eye on this place.

Lake Farm also houses a factory with an entire range of production lines for extracting high value-added fine aloe powder from fresh aloe. The newly expanded Mountain Farm is located beside a large rock mountain, home to local Indians, along a waterway. The scenery was spectacular at both farms, which are extremely dependent on Tampico's climate. The optimal temperature for growing aloe is 23-25°C. As the saying that "half of farming depends on the weather" goes, winter droughts and summer hurricanes from the Gulf of Mexico are the greatest challenges to aloe cultivation.

There are about 230 staff members working at the

plantation: 120 farmers, 100 employees working at a factory for extracting aloe gel and producing powdered aloe, and about 10 office workers. They are mostly Mexicans. Joseph Kim, Director of Operations and the only Korean employee at the plantation, said, "We assure a stable supply and quality products by introducing ECONET, a vertically integrated business model incorporating all processes from raw material production to R&D and sales." He confidently added that although it may appear strange to vertically integrate a farm, a factory and an R&D center, it generates the unique strength of a plant industry that creates high added value. Aloe plants can be harvested when they are two years old. The key to collecting aloe extract is organic farming.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or pesticides seriously affects the purity of extract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igh-end cosmetic manufacturers, as consumers of enriched aloe powder extracts, place great value on the purity of ingredients from natural products.

### Extracting minute ingredients from natural plants

"An opportunity comes accidentally and a failure opens the door to new opportunities." In the course of extracting medicinal ingredients found in aloe gel, a great many number of medicinal ingredients were found unexpectedly. As we speak, studies are underway to extract active ingredients from thousands of other plants. The prescience of Bill Lee, CEO of Namyang Aloe, is amazing. He had a vision of building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system that adapts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of the U.S., Mexico, China and Russia. It really

struck me that not only within a company but also for a nation, a leader with drive and keen insight can sustain not only employees, but all people.

Then, where do this power and energy come from? It is a miracle that an aloe farm that began in Ansan, Gyeonggi Province about thirty years ago is leading a promising business in the field of new plant materials as a major player in the natural product industry, capturing nearly 50% of the world's aloe market today, in 2005.

While I was touring the plantation, Joseph Kim continued to introduce me to the company, Namyang Aloe. Of some 30,000 plant species collected worldwide, about 4,000 species have been catalogued in a database that holds information about their medicinal effects. The number of plants in the database continues to grow. Namyang Aloe was able to outpace foreign competitors that had more than a fifty-year head start because it had succeeded in developing a technique to scientifically analyze ingredients and store active ingredients in their natural state.

Through this process, the company was able to secure source technology for analyzing the components of every plant. Unigen, the R&D wing of the company, has research centers in Byeongcheon, Korea, and in Seattle and Texas in the U.S. Joseph Kim excitedly told me that R&D Centers in Hainan, China and Kraskino, Russia would commence operation within the year.

In addition to the Tampico plantation in Mexico, the establishment of the Harlingen plantation (800,000 pyeong or 650 acres) in Texas, the Kraskino plantation (6.5 million pyeong or 5,250 acres) in Russia, and the Hainan Island plantation (3 million pyeong or 2,450 acres) in China are nearing completion. Joseph Kim was proud to say that a global network of 10 million pyeong (about 8,100 acres) is becoming a reality.

### Do or die - a ride in an old Cessna

Although I walked through the vast "sea of aloe" and drove around the endless fields, there was no

way to take a picture of this massive land. This is not a place where I can come everyday. How can I best describe those people who are exploring the land far away from home? This was a question I had been brooding over ever since I left Seoul. Is there a way to get a small plane? Could you please find one for me?

During my 20-hour stay at the Tampico plantation, flying over a sea of aloe in a small aircraft made me most anxious. Near the plantation, there was a small airstrip for small aircraft used as crop-dusters. There, we were able to locate a run-down Cessna, a light aircraft for two persons, which is mainly used to train pilots. The 27-year-old pilot Kenny Verlage, a large guy, kept speaking in fluent English to this foreign reporter. He handed me a pen and asked me to sign a waiver saying that I would not hold any ones liable, even if the plane were to crash. He grinned at me and told me I didn't have to board the plane if I didn't want to. After a brief pause, I told him I would go. Deep in my heart, I felt that I had become partly a Namyang man.

After taking off from the airstrip, I was presented with a view of the wonderful plains of Tampico. As the plane flew over Lake Farm, the farmers all waved at me and the women from the administrative staff came out of their office to see me high up in the sky. The dream of Namyang Aloe, which realizes a spirit of cultivation on a foreign land, is shared with these Mexicans. Namyang Aloe creates jobs for these farmers.

While looking down from the sky, the saying "bringing happiness to mankind" came to my mind. These were among the first words Joseph Kim, who is sincere and always does his best, had spoken to me. I quietly whispered the words spontaneously. Even a single company can "bring happiness to mankind." It was very rewarding to realize that aloe plants growing under glaring sunlight are like ginseng plants to Koreans. I think the sincerity and integrity of Joseph Kim, who manages the workforce at the plantation, is a valuable asset to Namyang Aloe.



He handed me a pen and asked me to sign a waiver saying that I would not hold any ones liable, even if the plane were to crash. He grinned at me and told me I didn't have to board the plane if I didn't want to.





# 구원모

유니젠 러시아 지사장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구이사님의 천부적인 유머는 말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이 글에 앞서 지난번 칭찬주인공으로 소인을 선정해주신 김진완 전임연구원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써 내려갈 이 분에 대한 칭찬을 본인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 첫인상..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사원이었고, 그 분은 자리 뒤에 커다란 러시아 지도를 등지고 앉아 계신 차장님(그때당시)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날카로워 보여 쉽게 접근하지 못했지만, 농담 한마디를 던지면서 부드럽게 웃을 때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죠...

## 구이사님의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몇 년을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비록 같은 업무는 아니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살벌하게..., 그 분의 그런 모습에서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됐죠...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구이사님의 천부적인 유머는 말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직원들과 한 발 가까이 다가선 모습들에 절로 웃음짓게 합니다. (특히 여직원들에게)



## 또 다른 면..

러시아로 떠나시기 전 유니젠에 계실 때 저와 함께 또 다른 큰 꿈을 꾸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죠... 드럼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서..., 꼭 밴드를 결성해서 공연 한 번 하자고...아직도 그 꿈 변치 않으시죠? 흥미삼 백미삼 ^^ 이렇게 구원모 이사께서는 일 할 때는 추진력있고 냉철하게 판단하시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고로 인기 있는 분이 아닐까합니다..

## 항상 지금처럼...

지금도 러시아에서 피와 땀을 쏟으며, ECONET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까맣게 타 버린 피부와 어찌면 이제는 러시아 사람이 다 된 구원모 이사님... 이제 6년째 알고 지내면서 그 분의 열정과 자신감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계신곳이 멀다보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배울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엔 의심이 없습니다... 구원모 이사님을 이번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비전과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야 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글 - 세번째 칭찬주인공 (주)유니젠 생명과학사업부 신 흥 대리

# Wonmo Ku

CEO, Unigen Russia

Written by Heung Shin, Assistant Manager at Unigen Korea



*There is no need to mention his sense of humor to anyone who has ever met him.*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a heartfelt thank you to Jinwan Kim, who chose me as a runner for the Relay of Praises in the last issue. It is also my greatest honor to praise the person I will be introducing to you in this issue.

### The first impression...

When I first met him, I was a new employee who knew very little about anything and he was a senior manager sitting with a huge map of Russia hanging behind him. I found it difficult to approach him because he seemed stern at first. However, when he smiled gently and made a joke, he showed how amiable he really is.

### Wonmo's charm...

While working at the same office as me for several years, he showed an interest in my work although our responsibilities were different. Whenever I needed a sounding board, he was there for me. He was kind sometimes, but firm at others. By watching him, I learned how to draw a line between official and personal affairs. There is no need to mention his sense of humor to anyone who has ever met him. You can't help but laugh at his antics aimed at narrowing the distance between himself and employees (female employee in particular).

### The other side of Wonmo...

When he was at Unigen with me before he left for Russia, he had another big aspiration: music. He wanted to learn how to play the drums. He suggested forming a band and giving a concert. You still have that dream, don't you?  
As you can see, Wonmo is even-tempered and inspirational as far as business is concerned, and I believe he is also very popular among employees.

### Always like today...

I can easily imagine Wonmo toiling in Russia to come one step closer to the ECONET dream. His skin must be tanned working under the sun. Perhaps he has come to feel completely at home in Russia by now.  
Over the past six years since I came to know him, I have been greatly affected by his passion and confidence. Although I cannot see him often nowadays because we are far apart, I have no doubt that I still have many things to learn from him.  
I am sure that everybody would agree with me that Wonmo Ku deserves to be selected as this month's runner for the Relay of Praises. I am confident that he will continue to be a mentor and role model for all of us, who must continue moving forward to realize ECONET's vision and dream.





# J.T. 위트워스

이번 호에서는 오아시스 라이프 사이언스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푼 한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J.T. 위트워스는 1999년 입사 이래 오아시스 라이프 사이언스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업 목표 달성 이상의 훌륭한 일들을 이룩해왔다. J.T.는 우리가 매일 같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특별한 정신, 즉 사랑과 인정의 정신을 일깨워주며, 혹시나 이를 잠시 잊은 날이라도 미소를 띠고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아시스의 직원들은 J.T.의 공헌을 사적인 방법으로, 즉, 각자에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 함으로써 치하해 주기로 했다.

J.T.는 인품이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그만의 고유한 활력을 주위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인정, 신뢰, 존경의 문화를 직장 내에 조성하였다.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그는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다. J.T.는 나의 스승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바쁜 일상중에도 J.T.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다. 즉,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다. 나는 J.T.의 그런 점이 좋다.

J.T.는 정말 직원들을 아끼며 그것이 눈에 보인다. 그는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일일이하는 인사를 하는 정말 분위기를 상승시킨다. J.T.는 그야말로 “Just Terrific”하다.



J.T.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나와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 큰 힘이 된다.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잘은 모르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모든 직원들을 많이 아낀다는 점이다. 나는 J.T.가 직원들에게 그냥 안부를 물으러 다정하게 다가가고 또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참 좋다.

J.T.는 무척 훌륭한 상사이다. 그는 인정이 많아서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항상 즐겁고 미소를 잃지 않는다.

J.T.가 “Just terrific”의 약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정말 이를 믿었다. J.T.는 친절하면서도 유머스럽고, 그의 나이 절반 밖에 안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J.T. 위트워스는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중에서도 최고이다. 그의 도덕성과 공정함 때문에 그를 따라서 함께 회사를 옮기고 다른 주로 이사를 다니는 매니저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J.T.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모두 주어진 업

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그는 주변에 훌륭한 인재를 두어 가능하면 권한을 많이 위임한다. 오아시스 라이프 사이언스가 J.T.를 CCO로 두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다.

J.T.는 나를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곤 한다. ...80km를 같이 뛰자고 해서... 제발 나 좀 살려 주세요!!!

J.T.와 나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 벌써 함께 일한 지가 18년이나 되었다. 밀워키에 있는 AGCO사에서 처음 J.T.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800년이 돼도 부족할 정도로 즐거웠다. J.T.는 직장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나를 지도해 주었으며, 그냥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성공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복 차림에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을 도와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밀어주고, 자기 개인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사람이 가족 예산을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봐 왔다. J.T.는 남을 돕는 일은 마다하는 경우가 생전 없는 듯하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귀감이 된다. 아직 J.T.를 나만큼 가깝게 알지 못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그와 악수를 하고 그의 온정을 느낄 수 있기 바란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항상 의지할 수 있으며, 그와 친구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J.T.의 일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근면함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애정과 함께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날의 삭막한 직장 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내가 J.T.에 대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뛰어난 유머 감각이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늘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과 한결같이 생활의 기쁨을 엿볼 수 있는 그의 눈빛 사이로 항상 유머가 넘쳐난다. 우리에게 정말로 훌륭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J.T.는 회사를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끈다. 매일 아침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항상 미소를 잊지 않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 J.T. 사랑합니다.

약 1년 전 오아시스가 Lacey로 이전할 무렵에 처음 J.T.를 만났다. 그에 대한 첫 인상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키가 크다는 점이었다. 내가 그와 일을 함께 하게 될 줄이야!

어려운 일이 있다 싶으면, J.T.가 즉시 해결해준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J.T.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일일 뿐이다.

J.T.는 내가 여태껏 만나본 사람들중 가장 놀라운 사람이다. 항상 활기가 넘쳐 흘러서 배터리 광고에 나오는 Energizer Bunny 같다. 그는 매일 같이 특유의 전염성 강한 미소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 JT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함께 일하며 지켜봐온 J.T.는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했다.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물론 이들도 곧 J.T.의 친구가 되었지만...J.T.는 그런 사람이다.)





J.T. ... 당신이 늘 우리에게 말하듯이 “너무나 감사해요”

— 조엘

J.T.의 인자한 성품과 모든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회사 전체를 단합시키며 긍정적인 문화를 창출한다.

— 앤

J.T.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늘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다. 항상 기댈 수 있는 든직한 바위같다.

— 리즈 호지스

J.T. 덕분에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참 좋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이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줄 수 직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가와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나도 그에게 고마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가 늘 우리를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Boss이다.

— 에리카

J.T.는 정말 다정 다감하여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을 챙겨준다. 그의 두 눈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인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는 가장 큰 어린아이이다.

— Kyra

신입 직원인 나는 J.T.가 앞으로 우리를 늘 반겨줄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가득해서 내가 오아시스팀에서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J.T. 고맙습니다!

— 타라 모스스

J.T.는 훌륭한 상사이다. 그는 늘 잊지 않고 콜 센터에 들러 따뜻한 미소를 띠며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의 열정은 항상 신선하게 느껴지며, 우리의 일

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J.T. 덕분에 회사가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가족 같은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된다.

— 젠

운영에 대해 간결하면서 핵심만을 찌르는 정답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즉시 J.T.를 찾아간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성실성과 근면함으로 무장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 폴 스미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높은 자리의 상사가 시간을 따로 내어 직원들 모두에게 아침인사를 한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깊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출근 둘째 날이 되자 그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J.T.는 내가 이곳에서 늘 환영받고 있으며,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Just terrific” 이야말로 J.T.를 묘사하는 말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 에밀리

나는 내 스스로 비교적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J.T.를 보면 창피한 생각이 든다. 캐피탈 시티 마라톤에서 같은 연령대에서 1위를 한 것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활기있게 매일 회사에 나오는 것까지, 언젠가는 꼭 것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지혜로움이 가득해서 그와 같은 인재를 회사 고위 경영진중한 명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J.T.는 매일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사하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J.T. 고맙습니다...당신 덕분에 내가 오아시스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 브리슨 토마스

J.T.는 직업정신과 인간성, 기지와 치밀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사람이다. 그는 그를 존경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Ageless living의 산 표본이다.

— 스탠

우리 모두 J.T. 위트워스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제는 J.T.가 자신이 우리 인생에 업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글 - 오아시스 고객 서비스 담당이사 마사 존슨

# J.T. Whitworth

It's time to recognize and celebrate one man's gift to his family at Oasis Lifesciences™.

Written by Martha M. Johnson, Director of Customer Services, Oasis / USA



J.T. Whitworth has been the heart and soul of Oasis Lifesciences™ since 1999 and has achieved so much more than business goals. J.T. has given us a special spirit, a spirit of love and compassion that lives in all of us each day and if we forget, he is always there to remind us as we watch him walk through the halls smiling and speaking to everyone by name. How can we not follow his lead? The staff of Oasis chose to celebrate J.T.'s accomplishments in a personal way, by expressing what he means to each of us individually.

J.T. is of man of excellence and integrity who shares a special spirit who has created an environment of care, trust and respect. He leads by example and is a true blessing to us all. J.T. is my mentor and part of my family.

— Martha M. Johnson

really matters in life: the people around you and making them feel good. That is what I like about him.

— Melissa

J.T. really cares about people and it shows. I love how he comes around and says good morning to each person, it's a real morale booster! J.T. really is "Just Terrific."

— Deb

J.T. is the greatest man I have ever worked with. He is an inspiration to me and to the success of our company.

— Bon

I haven't been here a long time so I don't know everything he has done for us but what I do know is that he cares a lot for everyone. I love when he comes around just to say hi and he remembers everyone's name.

— Kristin

In the midst of it all, J.T. seems to not forget what

I think J.T. is an awesome person to work for, he is





J.T., we honor and respect you.

very caring and always thinks about others.

- Angela

He is an inspiration, always happy and smiling.

- Heather

I was told and BELIEVE it to be true, J.T. stands for “just terrific.” He is kind and funny. He also has more energy than most people half his age.

- Lisa

J.T. Whitworth is the best corporate executive a person could hope to work for. He is known to have a following of managers who stay with him from company to company and from state to state for the privilege of his work ethic and fairness. J.T. runs effective meetings where decisions get made and everybody gets back to business. J.T. surrounds himself with good people and delegates responsibilities to them. Oasis LifeSciences™ is fortunate to have him as the Chief Operating Officer.

- Rob

J.T. can take you out of a coma in a split second……asking if you want to run a 50-mile trail. Oh, my… please help me.

- Yuri

J.T. and I have a special relationship in that we’ve been working together for 18 years. I came to work for him in Milwaukee at the AGCO Corporation (the old Allis Chalmers Tractor Division) and it has been a wonderful 1800 years (HA!). J.T. has schooled me in many facets of my business life. He has shown me over and over that it is not just good enough to do a good job; you’ve got to do the best you can do, use all of your resources, serve others, and succeed. I have seen this man get on his knees in his dress clothes to help someone complete a job, assist someone reach for higher personal goals, and take his own time to instruct others in a finer way of family budgeting. I believe there is nothing this man would not do to help others. He is truly an inspiration. If you have not gotten to know him as well as I do, please take the time to shake his hand, and feel his warmth.

- Ed

A man of honesty and integrity, a man you can

count on, a man whom you can be proud to be a friend of, and to.

- Stuart

J. T. possesses a keen intelligence and diligence in his work ethic tempered by a compassion for his colleagues that is unusual in today’s harried workplace. But what do I appreciate most about J.T.? Ah, the sense of humor that is always bubbling on the surface of a face that would much rather smile than frown, and eyes that reflect joy in the everyday sweetness of life. What a gift for us.

- Donna

J.T. really makes this company the family atmosphere, and I think it is so incredible how he takes the time to greet us all every day and has a smile for us whenever I see him. I love J.T.

- Brooke

I first met J.T. about a year or so ago when Oasis first started their move to Lacey. My first impression was his positive attitude and that he was taller than I thought he’d be.

Little did I know I’d end up working with him!

- Julie

If something is difficult, J.T. can do it immediately. The impossible takes him just a bit longer.

- Stephen

J.T. is the most amazing person I have met in my life, he is like the energizer bunny, he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every day he has a contagious smile, he will say hello to you with an open heart, always sincere. I am fortunate to know him.

- Ana Escobar

During the five years that I’ve worked with J.T., he has always made a point to consistently show kindness and appreciation for those who know him. (or don’t know him, in which case they will very soon, he’s just that kind of guy!)

- Nicki

Well, J.T., as you would say: “sure appreciate you.”

- Joel

J.T.’s warm personality and personal interest in every employee is helping us integrate our companies and create a positive culture.

- Anne

J.T. is a reliable, get things done kind of man. He is a rock you can always count on.

- Liz Hodges

I love the fact that J.T. makes it possible to come to work and feel appreciated. You don’t find many places where you can go to work knowing that someone that is in a high authority position has a warm heart felt smile, welcoming you every morning. The fact that he comes around and asks us how we are doing is wonderful, it makes me want to do my best always, to let him know that I appreciate him as well. I know that no matter what he is always there for us and that makes the best boss a person can have.

- Erica

J.T. is the sweetest man with the biggest heart who cares about everything and everyone; his eyes sparkle as if they were diamonds. He is also one of the biggest kids I know.

- Kyra

As a new employee I look forward to J.T.’s rounds to greet us, he always has a smile and made me feel very welcomed to the oasis team. Thank You J.T.!

- Tara Moses

J.T. is an excellent boss. He always comes around the call center, greeting each one of us, with a smile on his face. His enthusiasm is refreshing and his respect for the job we do very appreciated. He makes us feel like part of a family, instead of just a company.

- Jen

Whenever I need a concise, no-nonsense, immediate answer about anything operations, J.T. is the guy. It’s nice working around someone with a diligent perspective on task completion.

- Paul Smith



I would have to say I was extremely impressed when I first started working here (and still to this day) that someone so high up the company would take the time to come and say “Good Morning” to everyone on the staff… and he had all of our names memorized on my second day. He always makes me feel so welcome and so comfortable. “Just terrific” really does describe J.T. He’s an awesome man!

- Emily

You know, I consider myself in good shape… However, when I see J.T. - the man puts me to shame. I hope that one day, I can keep up at the pace that he has! From placing 1st in his age group in our Capital City Marathon, to coming in every day, ready to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He certainly has a wealth of wisdom that he dispenses to everyone, and we’re a very fortunate company with J.T. as one of our top decision makers. Every day J.T. comes in, he welcomes everyone to a new day. And helps make everyone feel important. Thanks, J.T. … for making Oasis such a great company to be a part of!

- Bryson Thomas

JT is the perfect blend of professionalism, humanity, wit and intensity. He is truly an example of Ageless Living for all of us who admire the man.

- Stan

**We** all understand the important role that J.T. Whitworth has played in our lives. Now we want J.T. to understand that who he is has made a difference and a major impact in our lives,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 (주)남양알로에

기업 문화 정립은 꼭 회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라는 조직과 그 구성원인 개인은 물론, 조직이 속한 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바람직한 기업문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능률협회에서 주최한 2003년 한국경영대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특징 5가지 중 네 번째는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서비스 기업의 경우 인재개발 및 기업문화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테스코의 경우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우수성 및 기업 내/외부 고객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기업문화의 우수성이 인정되었으며, 하나은행 또한 종업원 교육훈련 및 복지제도의 우수성과 기업문화 추진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재의 중요성이야 말할나위 없이 중요한 기업의 핵심역량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기에 더불어 또 하나의 기업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문화는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실례가 많이 있다. 최근 삼성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별이는 홍보 활동의 핵심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다. 기업이 각국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요구를 찾아내고 그 요구에 부합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 실행하는 현지화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인정받고, 또 인정받은 기업 문화가 전파되어 기업의 가치는 점점 증대되는 긍정적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에서만 기업문화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남양알로에도 과거에 경험했듯이 기업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임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거나 기타 다른 개인적인 욕구를 접고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일당 백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것도 오늘날의 남양알로에 위치에 설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힘든 환경 속에서 기업 회생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해 회사를 일으킨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업 문화가 아닐까?

남양알로에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업문화를 현재와 미래의 경영환경과 여건변화를 고려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데올로기와 관습, 규범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문화로 정착, 개발, 발전 시켜나가고자 활동하고 있다.

문화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에 형성되고 전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 노력

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남양알로에의 첫 노력은 기업 철학에 맞는 기업문화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장기 지속성, 통일성(일관성), 장기 지속능동성(생활화/제도화지원), 경영 효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기업문화 정립의 3대분야(Visual Identity, Mind Identity, Behavior Identity)에서 이루어졌다.

CI 를 비롯한 제품, 기타 표현물, 봉사활동, 설계사 지원활동, 설계사 자녀 장학금 제도 등에서 그 결과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천연물 시장에서 영원한 세계 1위의 기업이라는 비전에 맞는 남양알로에인으로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 문화 정립은 꼭 회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회사라는 조직과 그 구성원인 개인은 물론, 조직이 속한 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바람직한 기업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그 만큼 기업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며, 조직은 유연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응집력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조직 분위기도 좋아지며 근무여건도 개선하여 매출이 향상될 것이며, 개인은 매출향상의 과실은 물론 자기 발전과 만족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업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념적인 이야기에서 한 발 나아가 구체적인 남양알로에의 실천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침에 출근해서 만나는 직원과 **“행복한 아침이에요”** 라고 같이 웃음과 인사를 나눈다.

함께 일하는 임직원들끼리는 서로 **신뢰** 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준다.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한다.(Happy 쿨앳짱 - 매월 선정하고 추천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개발, 실현되도록 하는 **열린마음**을 가진다.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점심시간**을 만든다. (Happy Lunch-자유스럽게!)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제안과 업무개선을 **자율적**으로 한다.

월급의 일부를 불치병 환아를 위해 **기부**한다.

한달에 한번 사랑나눔이 활동으로 **자원봉사**한다.(연세 세브란스병원)

사랑의 헌혈도 했어요.(설계사 자녀 중 재생불량성빈혈인 환아를 위해)

그리고...

남양알로에 대리점에서는 매일 아침 남양알로에인으로서의 모습을 구호로 다짐한다.

사랑을 전하는 사랑 나눔이,

건강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미인 가꿈이,

행복을 가꾸는 행복 가꿈이

꿈과 사랑을 함께하는 남양알로에 가족입니다. 라고...

글 - (주)남양알로에 고객지원팀 박정아 기자

Happy together...



# Namyang Aloe Corporate Culture

Written by Reporter Jeongah Park, Customer Support Team, Namyang Aloe

Winning companies in the Korea Management Association’s Korea Management Awards 2003 share five things in common, one of which is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corporate culture are stressed as important elements for enhancing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y players that have many customer contact points.

Samsung Tesco’s excellence in its HR development system and its unique corporate culture that focuses on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was highly acclaimed. Hana Bank was also commended for its excellence in employee training and education and welfare programs and its corporate culture initiatives.

Needless to say, talented human resources are a core competency that is indispensable to companies. Furthermore, there are many instances indicating that corporate culture, which is recognized as another corporate resource, is a key variable in business management. These days, the focus of Samsung’s PR activitie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U.S., is contribution to society. The company practices localization in foreign countries by identifying specific areas of need where the company can contribute and developing and practic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 satisfy these needs. As a result, the company is appreciated in the country, and the appreciated corporate culture is in turn disseminated and corporate value is gradually increased.

The role of corporate culture is important not only in so-called “prosperous” companies. As we have seen from our prior experience, Namyang Aloe is perhaps where it is today because employees gave up their vacations or sacrificed their personal wishes, and instead worked harder to accomplish their tasks when faced with a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Moreover, in Korea, one often comes across stories about companies that successfully turned around thanks to the concerted efforts of its management and employees.

Isn’t this also a corporate culture?

At Namyang Aloe, we try to grow further, advance and insert a spontaneously created corporate culture into a comprehensive corporate culture that incorporates the values and beliefs of organizational members, their ideologies and practices, their norms and traditions, and their knowledge and technology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and future business environment and change.

As implied by its meaning, culture cannot be created and dissemin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requires various kinds of effort.

Namyang Aloe’s first effort began as we set a direction for developing a corporate culture consistent with our corporate philosophy. Under the guiding principles of global standards, long-term sustainability, consistency, long-term proactiveness (supporting institutionalization), and business efficiency, it has covered the three major areas of corporate culture: visual identity, intellectual identity and behavioral identity.

We can witness some of the results in the CI as well as in products, displays, volunteering activities,

health planner support activities, and scholarships for the children of health planners.

We are shaping an image of Namyang Aloe people that is well suited to our vision of becoming the world’s enduring number one company in the natural product market.

Defining corporate culture is not necessarily for the sake of the company alone. In order to be a desirable corporate culture, it needs to contribute to the company and its people as well as to the society to which the company belongs.

When a company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ts corporate image will improve. Its organization will solidify and communicate effectively, which will enable flexible and efficient operation. Its organizational atmosphere and work environment will improve and sales will increase. Individuals will share in the profits of improved sales and enjoy self-development and satisfaction. The Corporate culture should promote a positive cycle leading to a pleasant workplace.

*Let’s move away from conceptual discussions and take a look at concrete actions taken by Namyang Aloe.*

Every morning, greet your colleagues with “good morning” and a smile.

Have confidence in the colleagues you work with.

Offer supportive remarks.

Praise the merits of others. (Happy Cool & Jjang - select and recommend every month!)

Share information and ideas with others and be open to developing and realizing them.

Enjoy your meal and have an enjoyable lunchtime (Happy lunch - casual and relaxed atmosphere!)

Participate freely in a variety of activities.

Make suggestions and autonomously improve business processes

Donated a portion of our salaries to children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Volunteered once a month in the love-sharing activities at Yonsei Severance Hospital.

Donated blood to a life planner’s child who is suffering from aplastic anemia.

*And...*

*At Namyang Aloe agencies, we commit ourselves to the image of Namyang Aloe people with the following slogan.*

*We deliver love.*

*We protect health.*

*We promote beauty.*

*We promote happiness.*

*We are one big Namyang Aloe family sharing dreams and love.*

Happy together...



#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독립 기념일(7월 4일)은 미국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1776년 7월 4일의 독립 선언서 서명과 함께 탄생한 미국은 올해 탄생 229주년을 맞는다.

7월 4일은 붉은색, 흰색, 청색의 날, 피크닉, 페레이드, 악대의 날, 그리고 해변과 바베큐, 불꽃놀이의 날이다.

그렇지만, 각 가정의 7월 4일을 기념하는 방법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 만큼이나 다양하다.

Lacey의 직원들은 금년의 독립기념일을 각자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살짝 엿보기로 하자.

나는 금년 7월 4일을 여느 해의 7월 4일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함께 지낼 계획이다. 금년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집에서 보낼 계획인데,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통 홀리한**

이라크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7월 4일을 보내겠다. **스티븐 처니스케**

아마도 내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나 열대 우림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것 같다. 작년에 워싱턴의 Lacey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직도 돌아볼 곳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내가 돌아본 워싱턴의 산과 숲, 해변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롭 칼니트스키**

시택에 가서 바베큐를 하고 오리곤주의 모랄라로 축제 구경을 갈 계획이다. **크리스텐 닐스**

금년 독립기념일에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친구네 집에 가서 바베큐를 즐길 예정이다. **타라 아담스**

위스콘슨 밀워키에서 “위트워스” 가족의 화합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이 자리에는 손자, 손녀 24명과 내 아들, 딸 5명이 머느리, 사위와 함께 모인다. 우리 가족은 2년마다 한번씩 일주일간 이렇게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번에도 호수에서 수상스키와 배를 타거나 골프를 치던지 혹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쇼핑을 하면서 서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낼 것이다. **JT 위트워스**

7월 4일에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캠프를 갈 예정이다. 강가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불꽃놀이를 구경할 것이다. 매년 내가 크게 고대하는 행사이다. **사라A. 월**

우리 가족은 7월 4일을 특별히 기념하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모여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아버지와 나는 독립 기념일 주말에 낚시 여행을 떠나곤 했다. 금년 7월 4일에는 올림픽 반도의 Sol Duc강과 Hoh 강에서 치눅(킹) 연어나 코호(실버) 연어를 잡을 계획이다. 우리의 ‘비밀 장소’에 가서 대어를 낚아야겠다. **브리스 토마스**

아마도 헛간에서 내 말과 함께 잠을 잘 것이다. 말이 불꽃놀이 소리에 너무 겁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잡지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인즉 그렇다. 나는 내 동물들을 너무 놀라게 하기 때문에 불꽃 놀이가 싫다. **마사 존슨**

하루종일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를 즐길 것이다. 내 남편은 핫도그, 햄버거, 갈비 등을 굽고, 친척과 친구들은 샐러드, 칩스, 후식 등을 가져온다. 우리는 하루종일 게임을 하고 비디오도 보고, 밤에는 데이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지는 불꽃 놀이를 구경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웃들의 불꽃 놀이를 구경하고, S’ Mores(통밀 크래커 샌드위치로 가운데 초콜릿과 마시멜로우가 녹아 들어있어서 맛이 끝내줌!)을 구워먹는다. 폭죽 소리를 싫어하는 우리집 개만 빼고는 모두들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캐시 마커험**

우리 가족은 매년 7월 4일에는 Lake Retreat에 사시는 대고모 댁에 모두 모여 서로 안부를 물으며 바베큐도 즐기고, 수영, 낚시 등을 하고, 잔디밭에서는 크로케와 같은 게임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호수에서 연례 독립기념일 보트 페레이드를 개최하는데, 많게는 20여대까지의 보트를 치장을 한 후 기차처럼 길게 연결하여 호수 주변에 사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사탕과 팝콘 봉지 등을 던져주고 John Phillip Souza의 “Stars and Stripes Forever”를 크게 울린다. 이 연례 보트 페레이드는 현재 15년째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집의 오랜 전통에 비한다면 비교적 최근 일이라고 할 수 있다!

**JC 얼리와인, 유니젠 웨스트**

하루종일 쿨쿨쿨... **엔젤라 덴마이어**

아마도 바베큐를 하겠고 ..그리고 나서는 해변으로 나가 친구, 가족들과 함께 도시에서 벌어지는 불꽃 놀이를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도 직접 폭죽을 터트릴 것이다. **헤더 맥물렌**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다. “자유, 인생,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기리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존 리스**

우리 매트리스 가게를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 하느라 정신 없을걸? **캐롤린**

아이다호에서 나를 보러 온 우리 엄마하고 함께 보낼 예정이다. 내 결혼식(7월15일) 준비를 위해 쇼핑을 하러 다닐 것 같다.

**타마라 호크**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카약, 에어쇼 관람, 보트 쇼, 불꽃 놀이, 바베큐, 기타 등등. **웬웬 마**

친구들과 물가에서 하루종일 함께 놀고, 재빨리 중앙 앞자리를 차지해서 불꽃 놀이 구경을 해야지 ... ㅎㅎ **줄리 달비**

글쎄...아직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불꽃 놀이 행사를 구경하지 않을까? **닉키 스톰스**

7월 4일은 내가 태어난 곳이자 우리 가족 전통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으로의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자라고, 놀고, 학교를 다녔던 곳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휴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가족의 전통을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헌법, 사법 및 정치 제도의 근간이 된 영국의 인프라 및 전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아마 7월 4일 당일에는 나와 내 아내는 휴가의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 같다. **데릭 홀**

글 - 미국 유니베라 이세현 기자





*Independence Day celebrates the birthda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unded July 4<sup>th</sup> 1776, with the signing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merica is celebrating it's 229<sup>th</sup> birthday this year. (2005) The 4<sup>th</sup> of July is a time for the colors red, white and blue. A time for picnics, parades and marching bands. A time for beaches, BBQs and fireworks. However, for each individual, the ways to celebrate July 4<sup>th</sup> are as diverse as the United States itself. Let's take a peek at how Lacey employees will celebrate their own Fourth of July.*



Written by Reporter Sean Lee, Univera / USA



I am spending my 4<sup>th</sup> of July holiday like I spend every 4<sup>th</sup> of July - with my family. This year we will stay at home in Florida, but as long as we are together, that is a blessing. .... Tom Hoolihan

I will celebrate July 4<sup>th</sup> by praying for peace in Iraq. .... Stephen Cherniske

I'll probably get on my motorcycle and take a cruise to the beach or the rain forest. I moved to Lacey, WA, last year and still have a lot of discovering to do. So far this has been a beautiful state to explore with its mountains, forests and shores. .... Rob Kalnitsky

I am going to my in-laws for a bar-b-que and to go to a festival in Molalla, Oregon. .... Kristen Neils

This year for the 4<sup>th</sup> of July I am going to go and visit my dad and go to a friend's house for a barbeque. .... Tara Adams

I have a "Whitworth" family reunion that will be held in Milwaukee, Wisconsin. I will have 24 grandchildren there and five children with their spouses to celebrate the event. We meet every two years for a week and have a wonderful celebration. We will boat on the lake, water ski, golf, spend time at the beach, shop, eat and enjoy each other, etc. .... JT Whitworth

I will be camping over the 4<sup>th</sup> of July with friends and family. We'll have a BBQ and watch the fireworks along the riverside. I look forward to it every year. .... Sarah A. Wall

Well, we don't Celebrate the 4<sup>th</sup> of July. But our family has always made it a point to get together and spend time with one another. The past few years, my father and I have taken fishing trips for that weekend. This 4<sup>th</sup> of July weekend, we'll be fishing the Sol Duc River and Hoh River on the Olympic Peninsula for Chinook (King) Salmon, or Coho (Silver) Salmon. We always look forward to going and hitting our 'secret spots' . .... Bryson Thomas

What a nice thing to do. I will be sleeping in my barn with my horse because he is always so frightened by the fireworks. Don't print this, but it's true. I hate fireworks because they scare all my animals. .... Martha Johnson

"We have a family barbecue that lasts all day. My husband grills hot dogs, hamburgers and ribs, and family and friends bring salads, chips and desserts. We play games and watch movies all day and at

Independence Day

night watch the fireworks from Day Island. We have a neighborhood fireworks display afterwards and toast S' Mores (a kind of graham cracker sandwich with chocolate and marshmallows all melted together - yum!). Everyone has fun, except the dog. She hates the sound of fireworks!" ..... Kathy Markham

Every year on the 4<sup>th</sup> of July, since before I was born, my whole family meets at my great Aunt's cabin on Lake Retreat to barbeque and socialize, swim, boat and fish, and play games like croquet out on the lawn. More recently we have established the annual Independence Day Boat Parade on the lake, where up to 20 dressed up boats tied together in a large train throw candy and bags of popcorn to the residents and guests around the lake, while blaring John Phillip Souza's "Stars and Stripes Forever." This annual boat parade has been ongoing for 15 years! That's relatively recent for family tradition! ..... JC Earlywine

Sleeping..lol ..... Angela Danmeyer

Probably a bar-b-q. Then off to the waterfront to watch the cities' fireworks show with friends and family and then coming home and lighting fireworks of ours. .... Heather McMullen

My day will be spent with family, "Celebrating our Freedom, Life, and love of Family and Country". "Quality Time Together" ..... John Rhees

Preparing to move our mattress store to a much bigger location. .... Carolyn

I am spending this 4<sup>th</sup> of July with my mom who is from Idaho. We are going shopping for my wedding that is on July 15<sup>th</sup>! ..... Tamara Hawke

Kayaking, watching air shows, boat shows and fireworks and having BBQ with family and friends. .... Wenwen Ma

I'll be spending the day with friends on the water and plan to be front and center to watch the fireworks! ..... Julie Darby

Not yet sure. Most likely a public fire works display. .... Nickie Storms

I will have just returned from a vacation in England, the place where I was born and where our heritage is rooted. My children will see where I grew up and where I played and where I went to school. I am in hopes that, during this vacation, my children will come to a greater realization of how great it is to be an American and how much we have to be grateful for. They will gain a greater appreciation for their heritage as a family but equally important is that they will see much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tradition in England, which created the original foundation for the US constitution and its legal and political system. I believe, on the 4<sup>th</sup> itself, Shelby and I will be resting from the hectic pace of the vacation. .... Derek Hall





# Remember The Alamo!!

그 자리에 서면 자유를 향하던 그들의 피끓는 함성이 들리는 듯 하다.



알라모 성벽 정문앞에서 (필자가족)  
My family in front of the Alam



당시전투 상상도  
An illustration depicting the battl

텍사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웬지 모르게 텍사스 주민들의 (Texan)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 본토의 주중에서 가장 큰 주이기 때문이거니와 1836년에서 1844년까지 텍사스공화국 (Republic of Texas)으로써 독립국가였었다는 자랑스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 바로 알라모 전투지이다. 1820년대 이후부터 미시시피강을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미국인들의 팽창시대는 그들이 텍사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당시 텍사스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의 영토였다. 이곳에서 1823년 스티븐 오스틴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개척지의 권리를 얻어낸 이후 미국인들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 급기야는 1836년에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멕시코는 정규군 7,000여명을 파견, 민병대 및 지원자로 구성된 200명 남짓한 이주자들이 수비하고 있는 알라모를 공격하게 된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알라모 성벽은 원래 1724년에 선교의 목적으로 지어진 교회 (mission)이었지만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로 그 이후 스페인 / 멕시코 군대의 전략적 군사기지로 사용되어왔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13일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알라모 전투는 끝내 멕시코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1836년 3월 6일) 이 전투에서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약관 26세의 트레비스 대령(Colonel William Travis) 이 항복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땅에 글을 긋고 장병들에게 전투에 임할 사람은 이 선을 넘어 전투에 임하고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면 피신하라는 선택의 길을 제시, 한 사람 이외에 모든 인원이 죽음을 함께 했다는 무용담이 전해내려온다. 그 이외 칼잡이 (Knife fighter)로 용맹을 떨치던 짐 보위 (Jim

Bowie), 전 테네시 주의원 (former congressman from Tennessee)이었으며 개척가였던 데이빗 크로켓 (David Crockett)이 민병대를 이끌었던 리더였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서면 자유를 향하던 그들의 피끓는 함성이 들리는 듯 하다. 그 이후 샘 휴스턴 (Sam Houston) 장군의 지휘하에 텍사스군은 멕시코군에게 완강하게 맞서 리오그란데 강 (Rio Grande)을 국경선으로 하는 텍사스 공화국이 마침내 성립되게 되었다. 그만큼 알라모 전투는 텍사스의 역사에 가장 큰 족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알라모에서 발간한 안내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 While the facts surrounding the siege of the Alamo continued to be debated, there is no doubt about what the battle has come to symbolize. People worldwide continue to remember the Alamo as a place where men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freedom. For this reason the Alamo remains hallowed ground and the Shrine of Texas Liberty.”

이 알라모를 느낄줄 모르는 사람은 텍사스(Texan)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두개의 영화를 소개해 보면 1960년 존웨인 (John Wayne)이 감독·주연한 “The Alamo” 와 최근 1996년 빌리 밥 선턴(Billy Bob Thornton)이 주연한 “The Alamo”가 있는데 서부영화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자 하면 존 웨인의 영화를, 세련된 화면처리를 원하면 최근의 알라모를 선택하시라.

퀴즈 : 본문에서 텍사스의 주요 도시이름이 몇 개 나왔을까요?

글 - 미국 알로콧 관리부장 김수겸

전몰 위령탑  
A monument honoring dead soldier





# Remember The *Alamo!!*

*When you stand at the site, you may still sense their cries for freedom.*

Written by Joseph Kim, Director of Operations , Alcorp / USA

The moment you set foot in Texas, you get a sense of the strong pride of Texans. It may be because it is the largest state in the U.S. after Alaska and it has a proud history as an independent nation, the Republic of Texas, from 1836 through 1844. One major historical site that we cannot overlook in the history of Texas is the Alamo. Territorial expansion by Americans who began to cross the Mississippi River and move westward in the 1820s was in full swing when they set foot in Texas. At that time, Texas was a territory of Mexico, which had gained independence from Spain. In 1823, Stephen F. Austin obtained the permission of the Mexican government to explore the land, after which the number of Americans migrating to the area rose sharply. They eventually declared independence in 1836. In order to suppress American rebellions, Mexico sent roughly seven thousand soldiers to attack the Alamo, which was defended by about 200 migrants, including militia and volunteers. The wall of the Alamo shown in the picture was originally a part of a mission built for missionaries in 1724. Since then, however, as an important locale for transportation and military purposes, it has been used as a strategic military post by Spanish and Mexican troops. Despite being outnumbered, the defenders held out for 13 days, but the Alamo was finally captured by Mexico on March 6, 1836. Legend has it that Colonel Travis, aged 26, drew a line on the ground and asked any man willing to stay and fight to step over - all except one did. The Alamo's garrison included Jim Bowie, renowned knife fighter, and David Crockett, famed frontiersman and former Tennessee congressman. When you stand at the site, you may still sense their cries for freedom. After the battle, Texas troops, led by General Sam Houston, resolutely resisted the Mexican soldiers and finally established the Republic of Texas, with its border drawn by the Rio Grande. Without doubt the battle at the Alamo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Texas.

An information brochure published by the Alamo writes,

“While the facts surrounding the siege of the Alamo continued to be debated, there is no doubt about what the battle has come to symbolize. People worldwide continue to remember the Alamo as a place where men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freedom. For this reason the Alamo remains hallowed ground and the Shrine of Texas Liberty.”



An exhibit showing the history of the area  
시대 상황 전시회



A cannon actually used in the battle  
당시 사용했던 대포

Inside the Alamo  
알라모 성벽 내부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ose who cannot feel the spirit of the Alamo are not qualified to be Texans. In order to help you gain an understanding, I'd like to suggest two films: the 1960 film *The Alamo*, directed by and starring John Wayne, and the 2004 version of *The Alamo* starring Billy Bob Thornton. If you're nostalgic about Westerns, you'll want the one by John Wayne; if you're looking for sophisticated cinematography, you should opt for the more recent of the two.

*Quiz: In this article, how many major cities in Texas are mentioned?*





## 아름다운산 금강산을 다녀와서..

글 - ㈜남양 경영지원팀 최순미 대리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하고 장마철이 다가왔다. 드디어 6월24일 우리는 약 1년 동안 준비했던 금강산을 향해 즐거움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늦은 산행이 아닐까 많은 우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이런 걱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 회원(남양 산악회)들은 오랫동안 타게된 기차와 산행에 들떠 있었다. 늦은 업무들을 마치고 하루의 피곤함을 뒤로 젖혀두고 6/24일(금) 밤 22시 20분에 산악회 회원 14명은 부품 가슴을 안고 기차에 올랐다. 1년 동안이 준비하고 준비한 금강산을 드디어 오르게 된 것이다.

가깝고도 먼 북한땅을 밟게 될 줄이야~~ 꿈에서나 있을 줄 알았던... 하지만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다. 혹시 올라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같지 않은 걱정을~~ 하하하나 뿐만 아니라 회원들 모두 몇 십년 만에 타게 된 기

차였나보다. 기차의 낭만인 삶은계란과 사이다를 마시고 밤새 피곤한 줄 모르고 웃고 떠들면서 기대에 부풀어 어느새 우리의 목적지인 금강산에 다다르고 있었다. 날이 밝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어려운 남측 & 북측의 통관을 마치고 드디어 북한땅에 첫발을 내디었다. 모두들 감격에 눈물이 날뻔했다고... 북한도 같은 땅인지라 여름의 무더위에 고생인지 황망한 들판에 몇 채 되지 않는 듚성듬성한 집들과 바짝 마른 동,식물들이 보였다 ~ 현재 북한도 너무 가물어 지금 금강산 계곡물을 많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금강산은 아래와 같이 10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ㅋㅋ 이문구를 생각하며 금강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 금강산의 10대 아름다움

1.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악미

2. 풀과 나무와 바위가 조화된 계곡미
3. 아늑하고 온화한 호수미
4. 금강산의 절경을 동해에 옮겨놓은 해양미
5. 멀리 동서남북을 볼수 있는 전망미
6. 신비와 감탄과 황홀감과 장쾌함으로 저도 모르게 '야' 하는 감흥미
7. 울창한 수림과 특수식물을 보게 되는 수림미
8. 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건축 조각미
9.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들의 집결체인 색채미
10. 금강산의 바람과 구름과 안개가 이루어내는 풍운 조화미

금강산에 첫발을 디뎠을 때의 그 기분이란 정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다운~’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올라간 금강산은 태백산맥의 줄기를 주분수령으로 하여 갈라진 산줄기들이 동쪽·서쪽으로 수없이 뻗어, 그 산줄기마다에는 많은 산봉우리들이 이른바 1만 2,000봉을 이루고 있고 도처에 천태만상의 암주(岩柱)·암대(岩臺)·단애(斷崖) 및 기암괴석과 폭포· 시내· 못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그 중 우리는 만물상을 오르기로했다. 하루만에 다녀오는 여행이라 가보고 싶은곳이 많았지만 짧게나마 북한을 내려다 볼수 있는 곳인 만물상을 오르기로 한 것이다. 처음 시작은 다른 산의 산행 출발과 같았다. 하지만 드문드문 바위에 새겨져 있는 빨간 글들은 우리를 좀 어색하게 만들었다. 만상정(萬相亭) 주차장에서 100m쯤 올라가면 높은 벼랑 사이에 대문처럼 들어가는 길이 나 있다 하여 만물상대문 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문장 격인 무사바위가 버티어 서 있고, 그곳에서 좀 더 들어서면 만물상 초입에 그림으로 사진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삼선암(三仙岩)의 세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위에서 아래로 줄지어 늘어 서있었다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라고 불리는 산 봉우리 같은 거대한 바위들이 키 순서대로 보기 좋게 계곡의 왼편에 서 있고, 오른편 산 중턱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송곳 같은 바위가 홀로 우뚝 서 있다. 이것이 독선암(獨仙岩)이라고 한다. 산 중턱마다 북한 안내원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구수한 사투리와 빠른말들은 조금 신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같은 땀줄이 흐르는 동족에 때문이 었을까? 측은한 생각

도 들었다. 상선암 쪽으로 오르는 가파른 언덕에 50계단쯤 되는 쇠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계단을 오르면 만물상(萬物相)의 첫 전망대인 정성대(頂城臺)에 이르렀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산행이 아니었던게 가파른 경사에 계다가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인지라 지쳐들 있었고 따가운 햇볕에 그을려 더욱더 지쳐 가고있었다. 그리하여 정성대까지만 가고 내려가려 했으나 서남쪽으로 상등봉의 산줄기와 계곡이 시원하게 보이고, 동북쪽으로 오룡산과 세지봉(勢至峯) 줄기의 기암괴석(奇岩怪石)들이 병풍을 두른듯 금강제일승(金剛第一勝)을 보니 도저히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을수가 없었다.



정상에 바라보는 경관은 기묘한 수천의 봉우리들과 하늘의 오묘한 조화로우름을 극명하게 말해 주고, 사람, 동물, 귀신의 형상까지 갖가지 모습을 지닌 바위들은 산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인간계를 초월한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더 많은 정상을 가고 싶었으나 약속된 시간이 되어 우리는 바로 하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출발점으로 내려오는 길은 첫출발보다 더 힘이 들었다. 모두 다리에 기운도 없고 가뭄으로 마른 산은 우리를 탈진하게 했다.

더욱이 다들 배고픔을 호소하기까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도착한 금강산호텔에 예약해둔 평양냉면은 우리 맛(남한)이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의 냉면도 하나의 우리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남한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웬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다. 남한으로 돌아오며 곧 통관 없이 우리 땅 북한을 자유로이 드나들 날이 오겠지~ 라는 기대를 하며 우리는 금강산의 산행을 마쳤다.



Written by Soo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Namyang

Both the heat wave and the rainy season have set in. On June 24, we finally embarked on our journey to Geumgang Mountain after one year of preparations.

To be honest, I was deeply concerned that the date we had chosen might be too hot for mountain climbing. Contrary to my concerns, the members of the Namyang Alpine Club were extremely excited about the prospect of a train trip, which they haven't experienced for a while, and a trip to the mountain.

Despite their weariness from a long day's work, 14 club members boarded a train at 10:20 in the evening of June 24 (Friday).

We were all elated at the thought of climbing Geumgang Mountain. W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it for the past year.

Setting foot in North Korea - a land that is so close but also very distant - was something we had imagined only in our dreams.

Indeed, there were some unnecessary fears, such as what might happen if we were never able to return home. These were all silly and groundless anxieties.

I guess all of us hadn't had a chance to ride a train in a very long time.

Overjoyed by the trip, we stayed up all night chatting, giggling and feasting on hardboiled eggs and Sprite, which are some of the delights of a train ride. Before long, we approached our destination, Geumgang Mountain.

The following morning after the sun came up, we passed through North Korean customs and took our first steps on North Korean soil. All of us were moved almost to tears.

North Korea is no different from South Korea. The summer heat wave has set in. In deserted

fields, a few scattered houses, withered plants and scrawny animals were spotted. North Korea was suffering from a drought, and consequently the water in the valleys of Geumgang Mountain was shallow.

We were told that Geumgang Mountain has ten beauties. We left for Geumgang Mountain thinking about these.

### *Ten beauties of Geumgang Mountain*

1. The beauty of a gigantic and stunning mountain
2. The beauty of valleys adorned with grass, trees, and rocks
3. The beauty of a calm and serene lake
4. The beauty of the East Sea reflecting the landscape of Geumgang Mountain
5. The beauty of a spectacle towering over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6. The beauty of inspiration from mystery, wonder, fascination and excitement
7. The beauty of forests with dense trees and rare vegetation
8. The beauty of sculptures demonstrating our ancestor's skills and talents
9. The beauty of a collection of all the colors in the world
10. The beauty of the harmony between wind, clouds and fog at Geumgang Mountain

Those who have not been to Geumgang Mountain cannot understand the joy you feel when you set foot there for the first time.

'Let's go to Geumgang Mountain, a mountain of 12,000 peaks. The more you see, the more beautiful it becomes' We climbed Geumgang Mountain humming a cheerful song. Mountain ranges originating from the Taebaek Mountains

stretch out to the east and west. Nearly 12,000 peaks rise out of the ranges. Rock pillars and platforms, cliffs of various shapes, unique rocks, waterfalls, streams and ponds offer astounding scenic beauty.

Among these, we decided to visit Manmulsang Rock. Although we wanted to visit many places, we had to limit our choices because it was only a one-day trip. We chose a place where we could gaze upon as much of North Korea as possible.

The beginning was the same as any other mountain climbing trip. Only the red lettering engraved in rocks appeared somewhat unfamiliar. When you walk about 100 meters from the parking lot of Mansang Pavilion, there is a gate-like opening leading to a path between high cliffs. This is called Manmulsang Gate. There stands Musa Rock, a so-called gatekeeper. When you walk in a little bit further, the three peaks of Samseon Rock - an image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through portraits and photographs - stand in a row towering high into the sky. Large peaked rocks called Sangseon Rock, Jungseon Rock and Haseon Rock are lined up in order of height on the left side of the valley. On the right side of the slope of the mountain, another enormous pointed rock stands aloft. This is called Dokseon Rock. On every mountainside, North Korean guides briefed us. We were slightly amused at their local dialect and the fast pace of their speech.

However, perhaps because we come from the same bloodline, we felt compassion for them.

Along a steep slope toward Sangseon Rock, there was a steel ladder with about 50 rungs. By climbing this ladder, you can reach Jeongseongdae Cliff, the first lookout of Manmulsang Rock. The journey was not as easy as we had anticipated. The slopes were steep and many of us hadn't climbed a mountain for some time. Moreover, we were exhausted from the glaring sun.

We had initially planned to hike up to Jeongseongdae Cliff, where the mountain ranges and valleys of Sangdeung Peak unfold to the southwest and Obong Mountain and the unique rocks and rare stones of Seji Peak stood like a

folding screen to the northeast. A spectacular view of Geumgang's best landscape was irresistible.

The view from the summit clearly depicted the profound harmony of thousands of unique peaks with the sky. With the utmost beauty a mountain can offer, rocks shaped in various forms such as people, animals and ghosts demonstrated the greatness of nature that transcends the world of mortals.

Although we wanted to conquer many more summits, we had to descend the mountain because our time was up.

The return proved to be more difficult. Our legs felt weak and we were exhausted from climbing the dry, drought-stricken mountain.

Also, we were all starving.

Feeling hungry, we arrived at Geumgangsang Hotel, where we had a reservation, to have Pyeongyang cold noodles. It tasted different from what we are used to in South Korea.

Nonetheless, the cold noodles we had in North Korea are another unforgettable memory.

After completing our itinerary, we had to head back to South Korea.

I'm not sure why, but it felt as though the day lacked something.

As we returned to South Korea, we concluded our journey to Geumgang Mountain, hoping that we would be able to freely travel North Korea without going through immigration in the near future.





##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 1 신제품 베라스파 출시

액티브 알로에와 천연식물추출물을 소재로 한 고보습 헤어 & 바디케어 전문브랜드로 새롭게 선보인 베라스파는 그 디자인부터 자연의 향을 물씬 풍겨진다. 베라스파는 뛰어난 피부 보습 효과와, 풍부한 영양 공급으로 바디와 헤어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주며 심리적인 진정효과도 있어 현대인의 미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성 화장품 컨셉에 맞도록 내용물과 용기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사랑받는 제품이 될 것이다.

## • 제품 구성

헤어케어 - 베라스파 컨디셔닝 샴푸, 컨디셔닝 린스  
바디케어 - 베라스파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샤워코롱, 비누

## New Veraspa Product Line Launched



Veraspa, a newly launched intensive moisturizing hair and body care brand containing ACTIVAlloe and natural plant extracts, offers nature-friendliness even in its design. Its intensive moisturizing effect and rich nutrients keep skin and hair hydrated and smooth. They also have a soothing therapeutic effect, so they fully meet today's beauty standards. In addition, in line with their concept as nature-friendly cosmetics, the products and containers are made with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which will help them gain even greater popularity among consumers.

## • Product line :

Hair care - Veraspa conditioning shampoo, conditioning rinse  
Body care - Veraspa body cleanser, body lotion, shower cologne and soap

## 2 행복 키우기 (Beer Party)



6월 24일 에코넷 센터 꿈꾸는 정원에서 남양알로에 임직원 '행복키우기' 시간을 가졌다.

식사(뷔페)를 비롯해 시원한 맥주, 간식과 함께 전직원이 모두 모여 희망과 웃음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었다.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에서의 이런 전 직원 참여행사는 향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보다 의미있고 정예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 “Happiness-Growing” Beer Party

On June 24, the staff of Namyang Aloe gathered together in the ECONET Center Dreaming Garden to “grow happiness.”

Feasting on a buffet dinner, cold beer and snacks, the entire staff had a great time sharing their wishes and laughter.

In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and happiness, such events for the entire staff will take place periodically. We hope it will become a meaningful regular program.

## 3 전 사원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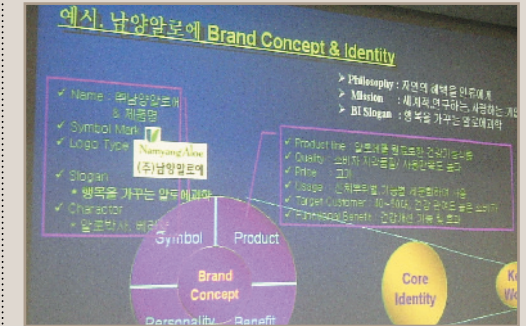
2005년 7, 8월 기간동안 에코넷 교육(SVC)과는 별도로 자사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직군과 직급에 따라 달리 이수하는 교육과 전체 임직원이 필히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내용은 브랜드관리, 알로에 이해 등이며 ‘브랜드 관련 (Brand Identity)’ 교육에서는 브랜드 이해와 자사의 향후 브랜드 관리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사설립의 이유였던 ‘알로에와 자사 제품’에 대한 교육도 전체 임직원에게 이루어진다.

남양알로에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며, 그 결과로 자사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인재 양성의 시간이 될 것이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분위기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Staff Training Held



In addition to ECONET training, Namyang Aloe will hold its own training sessions in July and August 2005. The program is divided into sessions specific to job groups and titles as well as ones obligatory for all staff.

Training topics include brand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aloe. The session on brand identity covers an understanding of our brand and brand management direction. The “Aloe and our Products” session conveys the rationale behind the founding of Namyang Aloe.

We expect that the program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and appreciate Namyang Aloe, and as a result, cultivate a talented workforce that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Namyang Aloe's growth and enhance employee satisfaction and morale.

## (주)남양 / Namyang Company

## 4 ECONET 통합메일서버 구축

에코넷 IT 통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을 이용하고 에코넷계열사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금번 통합메일서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남양알로에/남양/에코넷웨이에 대한 통합메일서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에코네시안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웹 메일시스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에



코넷웨이에 대한 전자메일 도메인을 통해 에코네시안의 통합 계정을 신청 접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Integrated ECONET Mail Server Built

In accordance with ECONET IT integration, an integrated mail server has been built in order to use information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cross ECONET companies. In the most recent project, an integrated mail server for Namyang Aloe, Namyang Company and ECONET Way was built. ECONETIANs are now able to use system's webmail function, which enables them to check their e-mail anywhere and anytime. In the future, ECONETIANs will be able to use integrated e-mail accounts with an ECONET Way e-mail domain.

## 5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획득 및 인증식



(주)남양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우수한 품질 즉 안전하고 유효성이 보장된 건강기능을 제조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정한 구조설비와 ,제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규범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는 GMP 인증을 2005년 6월 7일 획득하는데 성공하여 6월 29일 각 3사의 대표 및 임직원을 모시고 GMP인증 현판식을 올리는 뜻 깊은 날을 맞이하였다.

### Ceremony Held on the Occasion of GMP Certification



On June 7, Namyang successfully acquired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ertification from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ferring to “practi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quality functional foods,” GMP is a standard that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facilities, manufacturing,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so that health food and supplement manufacturers can produce high-quality functional foods with guaranteed relia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n June 29, a ceremony for the mounting of the GMP certification plaque took place in the presence of the CEOs of three Korean subsidiaries and their staff members.

## 6 GMP인증 획득 & 매출50억 달성 기념 야외 천렵행사



(주)남양 이병훈 대표는 지난 6월 29일 GMP인증 획득 및 매출 50억 달성을 기념하여 그 간의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서로간의 격려와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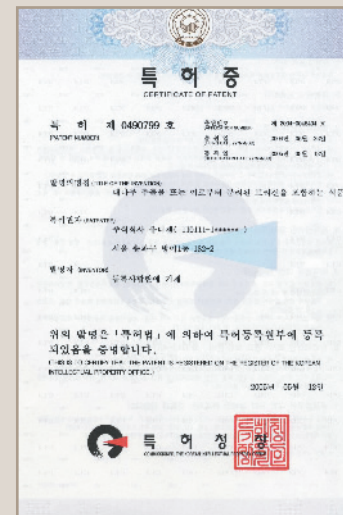
### Summer Cheollyeop Event in Celebration of GMP Certification and 5 Billion Won in Sales



In celebration of obtaining GMP certification and achieving 5 billion won in sales, Namyang CEO Bill Lee recognized the efforts of the entire staff. It was a significant occasion that served to renew harmony and support within the company.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7 유니백스(UniBEX™)신소재 특허 등록 완료



(주) 유니젠은 2004년에 출원한 유니백스(UniBEX™) 신소재 특허에 대해 대한민국 특허 등록을 완료(특허 제0490799호)했다. 이번에 등록된 유니백스(UniBEX™)신소재특허는 혈액순환기능 개선 효과 및 항염증 효

과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분야의 건강기능식품 소재될 활용될 계획이며, 여러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도 개발될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 Patent Registration of New Material UniBEX™ Completed

Unigen Korea completed patent registration for UniBEX™. The application for this product was filed in Korea in 2004 (Patent No. 0490799). UniBEX™ earned its patent through its efficacy at improving blood circulation and its anti-inflammatory effect.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ingredient in future health supplement products. It also has proven potential to be developed as a medicin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rious inflammatory diseases.

## 8 연구기획관리본부 신설



(주)유니젠은 회사의 핵심 기능인 천연물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명과학 연구소내에 연구기획관리 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연구기획관리 본부는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진도관리를 하는 개발관리팀과 천연물연구에 대한 마케팅 소재를 지원하고 영업을 수행하는 마케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장에는 국내 관련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차지민 박사가 영입되어 책임을 맡게 되었다.

### 신임 연구기획관리본부장 차지민 박사 약력

-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대학원 (의약화학 석사)
- 영국 켄트대학교(University of Kent) 대학원 (생화학 박사)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환경연구실장
- (주)오투플러스 연구소장
- 국회환경포럼 수질정책자문위원



## R&D Strategy Division Recently Established

Unigen Korea recently established a new R&D Strategy Division within its R&D Center in order to carry out and manag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s, a core function of the company. The newly founded R&D Strategy Division consists of a Development Management Team, which plans research themes and evaluates research progress, and a Marketing Team, which provides marketing and sales support to natural product research. Dr. Jimin Cha, who has extensive experience in related fields in Korea, has been recruited to head the division.

### Profile of Dr. Jimin Cha, new director of the R&D Strategy Division

- M.S. in Pharmaceutical Chemistry, University of London
- Ph.D in Biochemistry, University of Kent
- Director of Environmental Research Division, Korea Environment and Water Works Institute
- Director of R&D, O2Plus Co., Ltd.
- Advisor on water quality policy, National Assembly Environment Forum

## 미국유니젠 / Unigen USA

### 조니 밀러가 SupplySide West 2005에서 기조 연설 예정

Virgo Publishing은 NBC 스포츠 골프 해설자이자 PGA 투어 골프 선수 출신인 조니 밀러가 11월 10일 Venetian and Sands Expo에서 개최되는 SupplySide West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4년간 NBC 스포츠의 주요 골프 분석가로 활동해온 조니 밀러는 총 24차례 PGA 투어 타이틀을 우승하였으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골프 코스를 설

계하여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한 바도 있으며, 골프 전문지 Golf Digest에 매월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유니젠 미국의 수석 부사장인 리건 마일스는 “SupplySide West에서 조니 밀러의 기조 연설을 후원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그는 TV에서 보기에 도 매우 즐거운 사람이며, 그의 생동감 있는 연설을 직접 들을 수 있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골프 코스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것 외에도, 조니 밀러는 I Call the Shots와 Breaking 90 with Johnny Miller 등의 작품을 저술하여 에미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SupplySide West는 라스베이가스 Venetian and Sands Expo에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www.supplysideshow.com](http://www.supplysideshow.com) 또는 Virgo Publishing (800-454-5760)을 통해 알 수 있다. SupplySide West는 건강 보조 식품 및 천연물 제조업체, 판매업체, 공급업체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회의체로, 피닉스에 소재한 Virgo Publishing이 주관한다. Virgo Publishing은 SupplySide Trade Shows and Conferences, Focus on the Future Executive Conference and Retreat,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nutrilearn.com](http://nutrilearn.com)을 주관하고 있으며, 잡지 Natural Products Industry INSIDER와 HSR: Health Supplement Retailer을 발행하고 있다.

### Johnny Miller to Present Keynote Address at SupplySide West 2005

LAS VEGAS- Virgo Publishing announced that Johnny Miller, golf broadcaster for NBC Sports and former PGA Tour golfer, will present the keynote at SupplySide West on Nov. 10 at The Venetian and Sands Expo. The keynote address is sponsored by Unigen Pharmaceuticals Inc. ([www.unigenpharma.com](http://www.unigenpharma.com)).

The lead golf analyst for NBC Sports for the past fourteen years, Johnny Miller has won a total of 24 PGA titles and is a member of the World Golf

Hall of Fame. He has also designed many award-winning golf courses and writes a monthly column for Golf Digest.

“Unigen is delighted to sponsor Johnny’s presentation at SupplySide West,” said Regan Mile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Unigen Pharmaceuticals. “He is entertaining to watch on television and I’m eager to hear his lively presentation in person.”

In addition to being a course designer, Miller also is an Emmy-nominated writer who has penned the titles I Call the Shots and Breaking 90 with Johnny Miller. SupplySide West will take place Nov. 9-11 at The Venetian and The Sands Expo in Las Vegas.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supplysideshow.com](http://www.supplysideshow.com) or by calling Virgo Publishing at (800) 454-5760. SupplySide West, the world’s largest trade show and conference for manufacturers, marketers and suppliers of healthy and natural products, is produced by Phoenix-based Virgo Publishing. Virgo Publishing produces the SupplySide Trade Shows and Conferences, the Focus on the Future Executive Conference and Retreat, and the online training Web site [nutrilearn.com](http://nutrilearn.com); and publishes Natural Products Industry INSIDER and HSR: Health Supplement Retailer magazines.

## 하이난알로콥 / Hainan Aloecorp

10

### 하이난 알로콥 원료 생산을 위한 준비

알로에의 새로운 역사 중국 하이난 알로콥은 2007년 알로에 원료 생산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2004년 해남성 가신촌 제 1농장 25만평 조성에 이어 해남성 예기진에 임시 제 2농장 30만평을 금년내로 완공하고자 지난 6월말 부지 임대 완료에 이어 도로 건설 및 밭갈이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알로콥에서

선적한 알로에가 도착하는 오는 8월부터 본격 종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 Preparations to Produce Raw Materials at Hainan Aloecorp

Hainan Aloecorp in China,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aloe, is pushing forward with its goal to produce raw aloe in 2007. Since developing 250,000 pyeong at Jiaxin Town Plantation 1 in 2004, we plan to complete development of 300,000 pyeong at temporary plantation 2 in Ijizen, Hainan Province. We finalized the lease of the plot in late June and we are currently undertaking road construction and land clearing. In August, when aloe plants shipped from the U.S. in June are scheduled to arrive, we will set to work at planting.





## 신입사원 / New Hire



▲ 이주연(남양알로에)/  
마케팅본부 BM팀 과장  
Jooyoun Yi (NamyangAloe)/  
Manager, BM Team,  
Marketing Headquarter



▲ 김경미(남양알로에)/  
전략기획팀 대리  
Kyungmi Kim (Namyang Aloe)/  
Assistant Manager, Strategy  
Planning Team



▲ 정의선(남양알로에)/  
서울영업팀 사원  
Euseon Chung (Namyang  
Aloe)/ staff, Seoul Sales Team



▲ 이자은(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인사팀 사원  
Jaeun Lee (Namyang)/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 심문흠(남양)/  
생산기술팀 사원  
MunheumShim(Namyang)/  
staff, Production Technology  
Team



▲ 차지민(유니젠)/  
연구기획관리본부 본부장/ 이사  
Jimin Cha (UNIGEN)/  
R&D Strategy Division/ Director



▲ 손은정(유니젠)/  
천연물연구팀/ 주임연구원  
Eunjung Son (UNIGEN)/  
Natural Product Chemistry/  
Researcher



▲ 장미라(유니젠)/  
경영지원실/사원  
Mira Jang (UNIGEN)/  
Management/ staff



▲ 티모시 마타나네(오아시스)/  
물류창고 사원  
Timothy Mathanane(Oasis)/  
Warehouse Staff



▲ 크리스티나 닐스(오아시스)/  
콜 센터  
Kristina Neils (Oasis)/  
Call Center



▲ 데이빗 프레드릭(유니베라)/  
회계 담당 사원  
David Frederick(Univera)/  
Staff Acct



▲ 로비 반 골콤(오아시스)/  
웹마스터  
Robbie Van Gorkom(Oasis)/  
Jr. Web Master



▲ 후안 카스틸로(알로콧)/  
IT 기술 담당  
Juan Castillo(Aloecorp)/  
IT Technician



▲ 노에 로레도(알로콧)/  
QA 지원 담당  
Noe Loreda(Aloecorp)/  
QA Assistant



▲ 라울 카실라스 (알로콧)/  
프로젝트 엔지니어  
Raul Casillas(Aloecorp)/  
Project Engineer

▶ 엘네스토 살가도(알로콧)/ 멕시코 사업장 운영 담당 이사  
Ernesto Salgado(Aloecorp)/ Director of Mexico Operation.

## 승진 & 부서이동 소개/ Romotions & Transfers



▲ 마사 존슨(오아시스)  
콜센터 매니저 ⇨ 고객 서비스 담당 이사  
Martha Johnson (Oasis)  
Call Center Manager ⇨ Director of Customer Services



▲ 에반 모이란 (알로콧)  
운영 담당 이사 ⇨ 운영 담당 부사장  
Evan Moilan(Aloecorp)  
Director of Operations ⇨ Vice President, Operations.



▲ 카렌 후턴 (오아시스)  
주문 접수 주임 ⇨ 오아시스 매장  
Karen Hutton(Oasis) Supervisor, Order Entry ⇨  
Oasis Store

##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 ◆ 축하합니다.

2005년 6월 25일 곽은정 대리  
님의 귀여운 딸, 김나연양의 돌  
잔치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고 격려해주세요요



#### ◆ Congratulations!

Eunjeong Kwak (Assistant Manager) threw a party in  
celebration of the first birthday of her daughter, Nayeon Kim,

on June 25.

We all hope Nayeon will grow to be a beautiful and healthy  
girl with the greatest love from her mom and dad!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6/30 생명과학사업부 양병욱 차장 부친상

####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father of Byeongwook Yang, a deputy senior manager  
of the Bioscience Division, passed away on June 30, 2005.

## 생일자 소식 08~09

### Birthday in August & September

# Happy Birthday



◆ (8/9) 유후재  
Whojae 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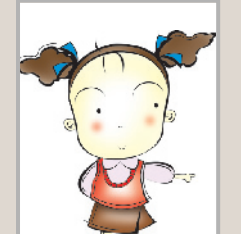
◆ (8/10) 강명숙  
Myungsuk Kang



◆ (8/19) 윤석희  
Seokhui Yoon



◆ (8/23) 김정순  
Jungsun Kim



◆ (8/27) 박영순  
Youngsun Park



◆ (8/31) 손남숙  
Namsuk Son



◆ (9/3) 이윤정  
Yunjung Lee



◆ (9/4) 하정순  
Jungsun Ha



◆ (9/4) 김용관  
Yonggwon Kim



◆ (9/6) 김태옥  
Taeok Kim



◆ (9/9) 박연호  
Yeonho Park



◆ (9/8) 윤정필  
Jungpil Yun



◆ (9/12) 최정환  
Jungwhan Choi



◆ (9/17) 서재호  
Jaeho Seo



◆ (9/20) 노윤향  
Younhang No



◆ (9/20) 유승환  
Seunghwan Yoo



◆ (9/23) 이재현  
Jaehyon Lee



◆ (9/25) 최순미  
Soonmi Choi



◆ (9/30) 박원우  
Wonwoo Park



◆ (8/4) 김윤하  
Yunha Kim



◆ (8/4) 서정범  
Jungbum Suh



◆ (8/18) 조용호  
Yongho Jo





◆ (8/23) 강지철  
Jaecheol Kang



◆ (8/25) 신은주  
Eunju Sin



◆ (9/02) 김종수  
Jongsoo Kim



◆ (9/09) 이광훈  
Gwanghoon Lee



◆ (9/12) 이종우  
Jongwoo Lee



◆ (9/13) 오선택  
Suntaek Oh



◆ (9/17) 정종희  
Jonghee Jung



◆ (9/20) 김수현  
Suhyun Kim



◆ (9/22) 송은주  
Eunju Song



◆ (9/23) 강경진  
Kyungjin Kang



◆ (9/26) 김진완  
Jinwan Kim



◆ (9/28) 이혜정  
Hyejung Lee



◆ (9/30) 김유수  
Yousoo Kim



◆ (8/1) 차지민  
Jimin Cha



◆ (8/6) 이강우  
Gangwoo Lee



◆ (9/2) 성수경  
Sookyung Sung



◆ (9/3) 윤길상  
Gilsang Youn



◆ (9/4) 오미선  
Misun Oh



◆ (9/9) 남정범  
Jeongbum Nam



◆ (9/15) 김충섭  
Chungseop Kim



◆ (8/4) 안젤리나 오비에도  
Angelina Oviedo



◆ (8/9) 마리오 로페즈  
Mario Lopez



◆ (8/9) 모리시오 웬레스  
Mauricio Fuentes



◆ (8/13) 제랄도 피규에로아  
Gerardo Figuer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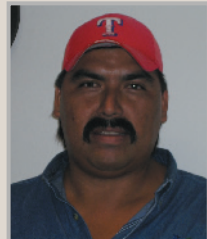
◆ (8/20) 호세 롤단  
Jose Roldan



◆ (8/21) 산티아고 페레스  
Santiago Perez



◆ (8/24) 비아트리즈 다미안  
Beatriz Damian



◆ (8/27) 산토스 살리나스 2세  
Santos Salinas, Jr.



◆ (8/26) 믹 앤더슨  
Mick Anderson



◆ (8/28) 에제퀴아스 무니즈  
Ezequias Muniz



◆ (8/30) 훌리오 바즈퀘예스  
Julio Vazquez



◆ (9/1) 마리아 헤레라  
Maria Herrera



◆ (9/2) 로드리고 로메로  
Rodrigo Romero



◆ (9/3) 로사리오 디아즈  
Rosario Diaz



◆ (9/3) 세라피아 산타마리아  
Serapia Santamaria



◆ (9/5) 켄 존스  
Ken Jones



◆ (9/7) 카렌 카스틸로  
Karen Castillo



◆ (9/7) 오시엘 마르티네스  
Osiel Martinez



◆ (9/11) 카리나 마요가  
Karina Mayorga



◆ (9/16) 호세 카바조스  
Jose Cavazos



◆ (9/18) 놀마 가자  
Norma Garza



◆ (9/19) 후한 엘 가르시아  
Juan L. Garcia



◆ (9/19) 파비안 가르시아  
Fabian Garcia



◆ (9/19) 산 후안 아르멘타  
San Juan Armenta



◆ (9/20) 김수점  
Joseph Kim



◆ (9/20) 아가피토 로드리구에즈  
Agapito Rodrigu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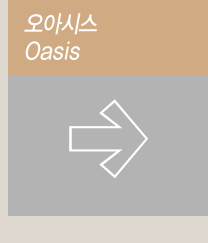
◆ (9/21) 아드리아나 드 라 크루즈  
Adriana De La Cr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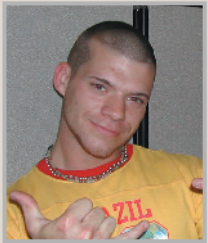
◆ (9/25) 란달 롱고리아  
Randall Longoria



◆ (9/26) 자즈민 타피아  
Jazmin Tapia



◆ (8/1) 에드 클라크  
Ed Clark



◆ (8/27) 닉 페리스  
Nick Ferris



◆ (8/31) 리사 라론다  
Lisa LaLonda



◆ (9/4) 폴 스미스  
Paul Smith



◆ (9/8) 토드 쉘스키  
Todd Shumsky



◆ (9/14) 카렌 후턴  
Karen Hutton



◆ (9/23) 크리스티나 닐스  
Kristina Neils



◆ (9/26) 유리 보로베츠  
Yuri Vorobets



◆ (9/29) 미시 모셔  
Missy Mosher



◆ (8/20) 마이크 잔  
Mike Z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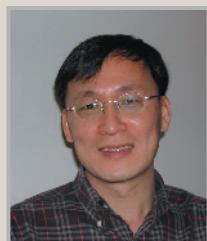
◆ (8/16) 드미트리예브  
블라드미르 일리치  
Dmitriyev



◆ (8/19) 라이보브 이바노브나  
Rybov Ibanovna



◆ (9/16) 스베틀라나  
아나토이예브나  
Svetlana Anatoyevna



◆ (9/07) 이요한  
Yohan Lee

Happy Birthday



## 에코넷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 및 상품안내

이번에 뽑힌 최우수작품과 우수작품은 사진컨테스트를 주관한 부서에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도 상품을 각 부분의 우승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즉, 항공권 1장당 \$750 / 2매 = \$1500 셋으로 나누면 \$500 씩 돌아갑니다.)

사진컨테스트를 주최해 주신 Oasis Marketing & Sales Team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 Winners and Prizes in the ECONET Photo Contest

The winners of the first and second prize are from the team that organized the photo contest. Therefore, the prize will be distributed among the winners in each category (i.e. \$750 per air ticket × 2 tickets = \$1500 divided by three winners, so each winner will receive \$500). Thank you to the entire Oasis Marketing and Sales Team for organizing this photo contest!



### 최우수작품 / 미소짓는 소년 오아시스 스코티 쿠푸스

◆ 작품평 : 들판, 모래, 물, 하늘, 인류 등 적절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사실 이번작품 사진속 주인공이 바로 스코티 쿠푸스 이사님의 아들 애론입니다. ECONET WAY 8월호 표지에 실리는 가장 큰 영광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 First Prize Winner / "Smiling Boy" by Scotty Kufus, Oasis

"Smiling Boy" has the right blend of elements: grass, sand, water, sky and people.

- Actually, the smiling boy is Aaron Kufus, the son of Scotty Kufus at Oasis. We give you the greatest honor of being the cover model for the August issue of ECONET WAY. Congratulations!



### 우수작품 / 해변의 단짝 친구들 오아시스 마케팅 & 세일즈팀

◆ 작품평 : 즐거움과 자연이 태양, 모래, 에코넷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 Second Prize Winner / "Beach Buddies"

by Oasis Marketing & Sales Team

"Beach Buddies" combines joy and nature by bringing together sun, sand and ECONET.

각 부분 우승자 - 어디서든 식사할 수 있는 \$300 상품권 + \$500 (일등상 항공권 가격의 1/3)

Winners by Category - \$300 in meal vouchers + \$500 (the value of an air ticket for the first prize winner divided by three winners)



### 재미있는 얼굴의 우승작 / 스카이 다이빙

마이크 잔, 미국 유니젠

### Winner in the Funny Faces category / "Skydive"

by Mike Zahn, Unigen Research Associate



### 자연의 우승작 / 나의 맛있는 후식

서정범, 남양알로에

### Winner in the Nature category / "My Dessert"

by Jungbum Suh, Namyang Aloe



### 구조물의 우승작 / 에코넷 피라미드

미씨 모셔, 오아시스, 마케팅 및 상품 개발 담당  
줄리아 후, 유니젠 미국, 연구 지원 담당  
바비 하나, 유니젠 미국, 연구 지원 담당  
사란 펠, 오아시스, 세일즈 코디네이터  
선리, 유니베라, 관리 담당

### Winner in the Structure category / "ECONET Pyramid of Ladies"

Missy Mosher, Oasis, Marketing and Product Development Administrator  
Julia Foo, Unigen, Research Assistant  
Bobby Hanna, Unigen, Research Assistant  
Sarann Pel, Oasis, Sales Coordinator  
Sean Lee, Univera,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 보너스 참가상 / Runners-Up



~우우! 에코넷, 사막과 모자 (10만원 상당의 상품)  
스코티 쿠푸스, 오아시스스코티 쿠푸스

**"Foouuur!" and "Desert and a hat"** (Prizes worth \$100)  
Scotty Kufus,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Oasis



에코넷웨이와 유니젠 사람들 (10만원 상당의 상품)  
장미라, (주)유니젠

**"ECONET Way and Unigen People"** (Prizes worth \$100)  
Myra Chang, Unige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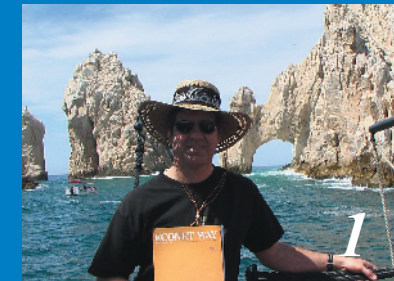


**"누가 가장 귀여운가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워싱턴 올림피아 공원의 숲을 배경으로 선 나의 어여쁜 친구들  
• 앞줄왼쪽부터 : 셰일라 (미시의 토끼), 미미 (선의 강아지),  
루벤 (노마의 아들), 알렉스 (나의 강아지, 아니 내 "아들"),  
그리고 나 (정미정)

정미정, 유니젠 미국, QC 연구원

**"Who do you think is cutest?"** (Prizes worth \$100)  
"Posing with my adorable friends in the woods of a park in Olympia, WA"  
• From front left : Shayla (Missy's bunny),  
Mimi (Sean's puppy), Ruben (Norma's son),  
Alex (my pet... oops, I mean "son"), and me (Mijeong)  
Mijeong Jeong, QC Scientist, Unigen USA

## 그밖에 참가해 주신 분들 / Other Entries



1



2



3



4



5



6



7



8

**1** 가장 아름다운 경치(카보 아치)  
멕시코 카보 산 루카스에 위치한 유명한 아치임.  
조엘 패트릭, 오아시스 마케팅 서비스 매니저

**Most Beautiful Scenery** (Cabo Arch)  
This is the famous arch in Cabo San Lucas, Mexico.  
Joel Patrick, Oasis, Manager of Marketing Services

**2** 줄리 다비, 오아시스 프로젝트 세일즈 매니저  
Julie Darby, Oasis, Project Sales Manager

**3** 우리는 에코넷가족  
이재은 이사, (주)남양알로에  
**We are ECONET Family**  
Jaeun Lee, Namyang Aloe, Director

**4** 에코넷의 시작 러시아 농장 행군중  
송은주 주임, (주)남양알로에  
**The Beginning of ECONET Marching through Kraskino plantation**  
Eunjoo Song, Namyang Aloe, Supervisor

**5** 에코넷이안들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송윤섭 주임, 중국 하이난 알로콤  
**ECONETIANs' Christmas in Summe**  
Yunseob Song, Supervisor, Hainan Aloecorp

**6** 마이크 잔, 미국 유니젠, Research Associate  
Mike Zahn, Unigen, Research Associat

**7** 장미라, (주)유니젠  
Myra Chang, Unigen Korea

**8** 서정범, (주)남양알로에  
Jungbum Suh, Namyang Aloe

▶ 10월호 사진컨테스트는 여름휴가때 찍은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응모바랍니다.  
▶ For the October Photo contest, please send memorable pictures from your summer holidays.



# 8월호 퀴즈 & 6월호 당첨자 발표

## 퀴즈정답 - ( 메타블럭 )

- ▶ 6월호 퀴즈당첨자
  - 메타블럭 받으실분 : (주)유니젠 / 신혜경 (주)남양 / 신부희, 신범순 오아시스 콜 센터 / 헤더 맥물렌 (Heather McMullen)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엽서
- ▶ 8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62page에 있습니다.
- ▶ 10월호 사진컨테스트는 여름휴가때 찍은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응모바랍니다.
  - 1등 : 100,000원 백화점 상품권, 2등: 50,000원 백화점 상품권, 3등: 30,000원 상품권
  - 해외 당첨자분들께는 위의 가격에 동등한 선물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8월호 ECONET WAY 퀴즈

- 우리가 정의한 기업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 )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지속되는 자연이며, 우리가 가진 과학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통해 언어질 수 있는 과학이다.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로움은 ‘이로운 자연의 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눈과 입에 즐거운 것,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진정성(眞情性)을 가지는 ‘좋은 것’을 말한다.

# August Quiz and Winners of the June Quiz

## Answers - ( Meta Block )

- ▶ Winners of the June Quiz
  - Winners of Meta Block :  
Haegyeong Shin / Unigen Korea, Buhee Shin and Beomsun Shin / Namyang Company, Heather McMullen / Oasis Call Center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SeanL@econetwest.com or kaoh@univera.com) or by postcard
- ▶ The winners of August photo contest are announced on page 62.
- ▶ For the October Photo contest, please send memorable pictures from your summer holidays.
  - First prize : A \$100 department store gift certificate
  - Second prize : \$50 department store gift certificate
  - Third prize : A \$30 department store gift certificate
  - Winners from offices outside of Korea will be sent prizes of equivalent value.

### Quiz for the ECONET WAY August issue

The concept of ( ) the identity of the corporate brand we had defined, is as follows.

The nature that we pursue is sustainable when nature and human, and human and human exist together in a beneficial way. The science we possess can be obtained through a deep understanding and study of nature. The benefits we seek to deliver to mankind are the “best benefits of nature.” It refers to true “virtue and value” and not just something pleasing to the eye and tongue alone or giving fleeting enjoyment.



에코넷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ECONET WAY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고객, 직원, 가족)

성명 \_\_\_\_\_

소속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사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동 302-4 에코넷센터 3층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에코넷웨이” 편집담당자 앞

1 3 3 - 1 2 0

ECONET WAY  
Postcard

sender (customer, employee, family)

Name \_\_\_\_\_

Division \_\_\_\_\_

Address \_\_\_\_\_

Phone number \_\_\_\_\_

□□□-□□□

Please send to

The Editor of ECONET WA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3th floor,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1 3 3 - 1 2 0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 함께 만드는 ECONET WAY •

에코네이션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2. '에코넷웨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3. '에코넷웨이'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 8월호 정답

• Let’s join the ECONET WAY •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 Answer

ECONET WAY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주)남양 / Namyang Company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Inc.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namyangaloe.com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유니베라 / Univera,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오아시스 / Oasis Lifescienc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oasislifesciences.com

미국 유니젠 / Unigen Phmaceuticl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생산) / Aloecorp Inc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영업) / Aloecorp Inc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3rd Floor, Aleutuskaya 14str.  
Bladivostok, Primory, Russia  
Tel : 7-4232-30-10-66, Fax : 7-4232-30-10-64



고보습 헤어 & 바디케어 전문 브랜드

# VeraSpa

## 베라스파

자연의 촉촉하고 풍부한 영양과  
부드러움을 소중한 당신께...

